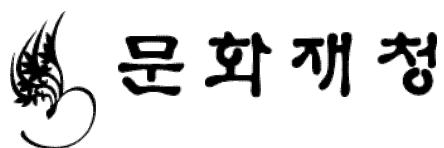


목포 구 청년회관

기록화 조사 보고서





CONTENES



목 차

● 원색화보	7
I. 실측조사 개요	19
1. 문화재 현황	21
2. 조사목적 및 방법	22
3. 조사일정 및 조사단	25
II. 연혁	29
1. 목포의 청년운동	31
2. 목포 구 청년회관 연혁	32
III. 건축 및 실측조사	37
1. 입지환경 및 배치	39
2. 평면구성	42
3. 입면구성	44
4. 건축구조 및 재료	48
IV. 종합 고찰	51
1. 역사 및 건축적 의미	53
2. 보존방안	54
V. 실측 도면	57
● 단색화보	79
● 참고문헌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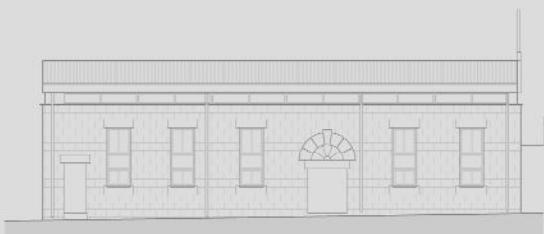


사진 목차

〈사진 1〉 목포 구 청년회관(현 목포 제일교회)	21
〈사진 2〉 일제강점기 유달산 남쪽 기슭 시가지 모습	22
〈사진 3〉 유달산 남쪽에서 바라본 1930년경 도시 모습	22
〈사진 4〉 목포 시립도서관	23
〈사진 5〉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24
〈사진 6〉 구 호남은행 목포지점	24
〈사진 7〉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	24
〈사진 8〉 목포 정명여자중학교 구 선교사 사택	24
〈사진 9〉 구 목포심상고등소학교 강당	24
〈사진 10〉 목포 중앙동 일식가옥	24
〈사진 11〉 목포 양동교회	24
〈사진 12〉 대수선을 위한 지붕 및 부속사 철거 모습	34
〈사진 13〉 지붕철거 후의 벽체 모습	34
〈사진 14〉 일제강점기 한국인이 주로 살았던 유달산 기슭의 남교동 일대	39
〈사진 15〉 남교동의 근대 한옥	39
〈사진 16〉 목포 구 청년회관 주변	41
〈사진 17〉 목포 구 청년회관 입구	41
〈사진 18〉 현 전면 담장	41
〈사진 19〉 옛 담장과 교회정문	41
〈사진 20〉 교회 본당 내부	42
〈사진 21〉 종종 유아실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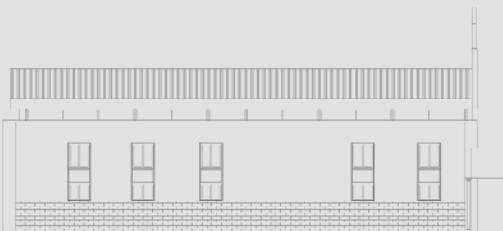
CONTENES



〈사진 22〉 1층 사택 내부	43
〈사진 23〉 중층 교육관	43
〈사진 24〉 건물 정면	45
〈사진 25〉 건물 우측면	45
〈사진 26〉 좌측면 출입구 상부 아치	45
〈사진 27〉 우측면 벽체 상세	45
〈사진 28〉 벽체 상부와 측장	47
〈사진 29〉 창호	47
〈사진 30〉 창호 하인방	47
〈사진 31〉 보수전 교회 강단 모습	49
〈사진 32〉 강단 후벽	49
〈사진 33〉 지붕 철재 트러스	49
〈사진 34〉 정명여학교 교장 사택이었던 유애나관	54
〈사진 35〉 죽동교회	54
〈사진 36〉 구 동양척식 목포지점 지점장 관사	55
〈사진 37〉 1991년 화재로 전소된 정명여학교 구 선교사 사택	55

그림 목차

〈그림 1〉 목포 구 청년회관 위치도	40
〈그림 2〉 배치도	41
〈그림 3〉 1층 평면도	44
〈그림 4〉 중2층 평면도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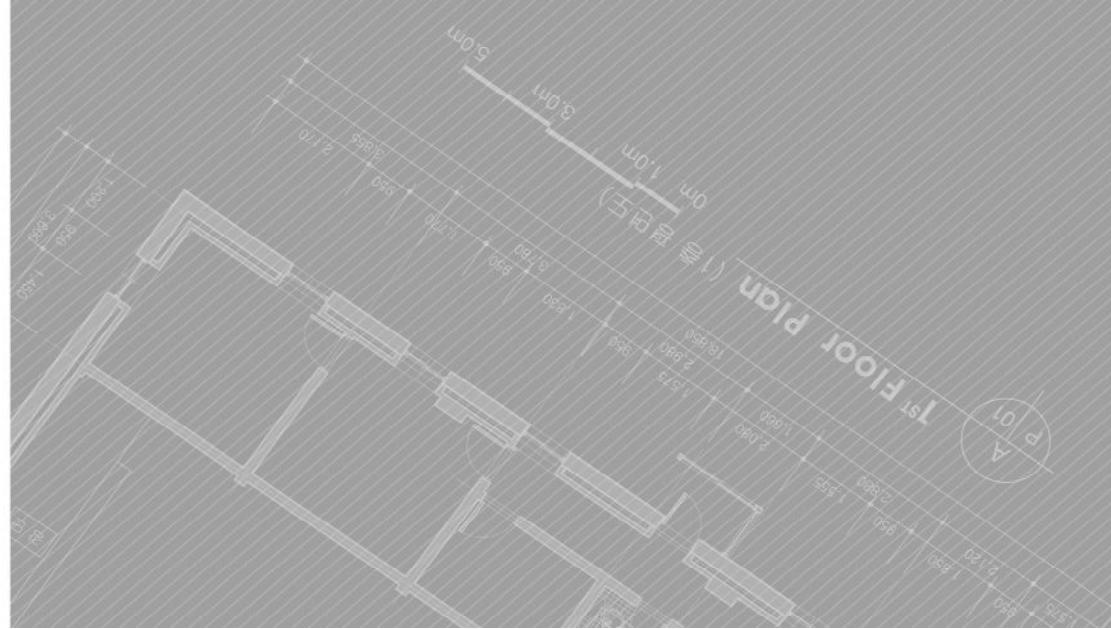
〈그림 5〉 정면도	46
〈그림 6〉 배면도	46
〈그림 7〉 우측면도	46
〈그림 8〉 좌측면도	46
〈그림 9〉 돌 나누기 상세(정면 현관우측 하단부)	47
〈그림 10〉 돌 나누기 상세(좌측면 뒷쪽 하단부)	47
〈그림 11〉 정면 출입구 아치	47
〈그림 12〉 좌측면 출입구 아치	47
〈그림 13〉 횡단면도	48
〈그림 14〉 종단면도	48
〈그림 15〉 트러스 구조도	50
〈그림 16〉 벽체 단면 상세도(현재)	50
〈그림 17〉 벽체 단면 상세도(보수전)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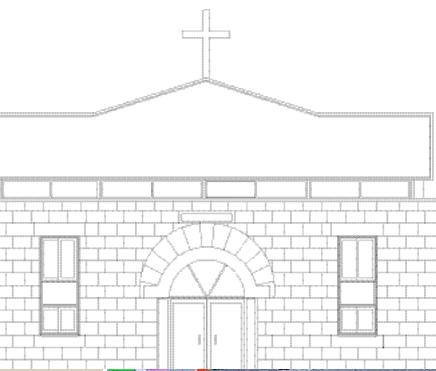
표 목차

〈표 1〉 문화재로 지정된 목포의 근대건축물	23
〈표 2〉 목포 구 청년회관 주요 건축연혁	35
〈표 3〉 목포 구 청년회관 실별면적표	43
〈표 4〉 목포 구 청년회관 실내재료 마감표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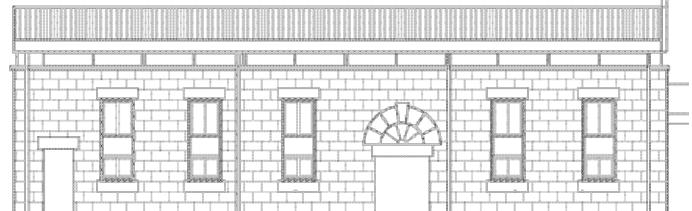
원 색 화 보





목포 구 청년회관

주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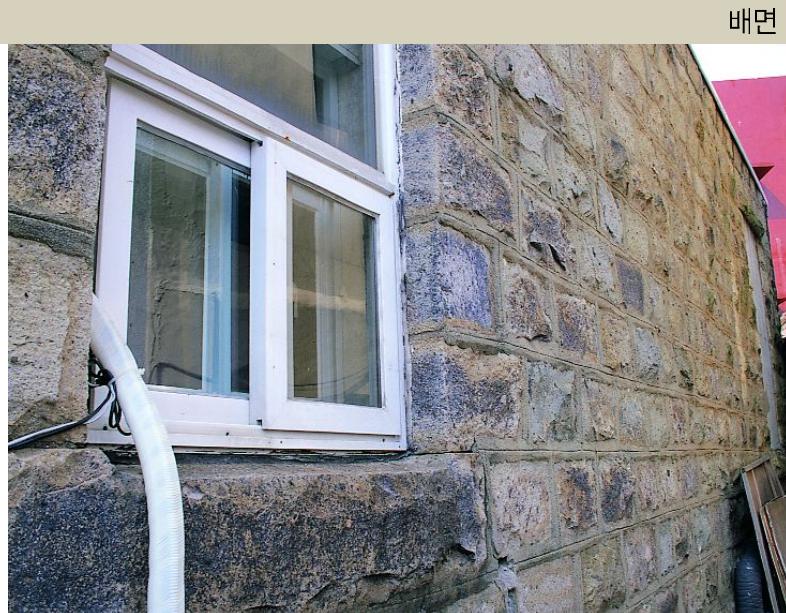
정면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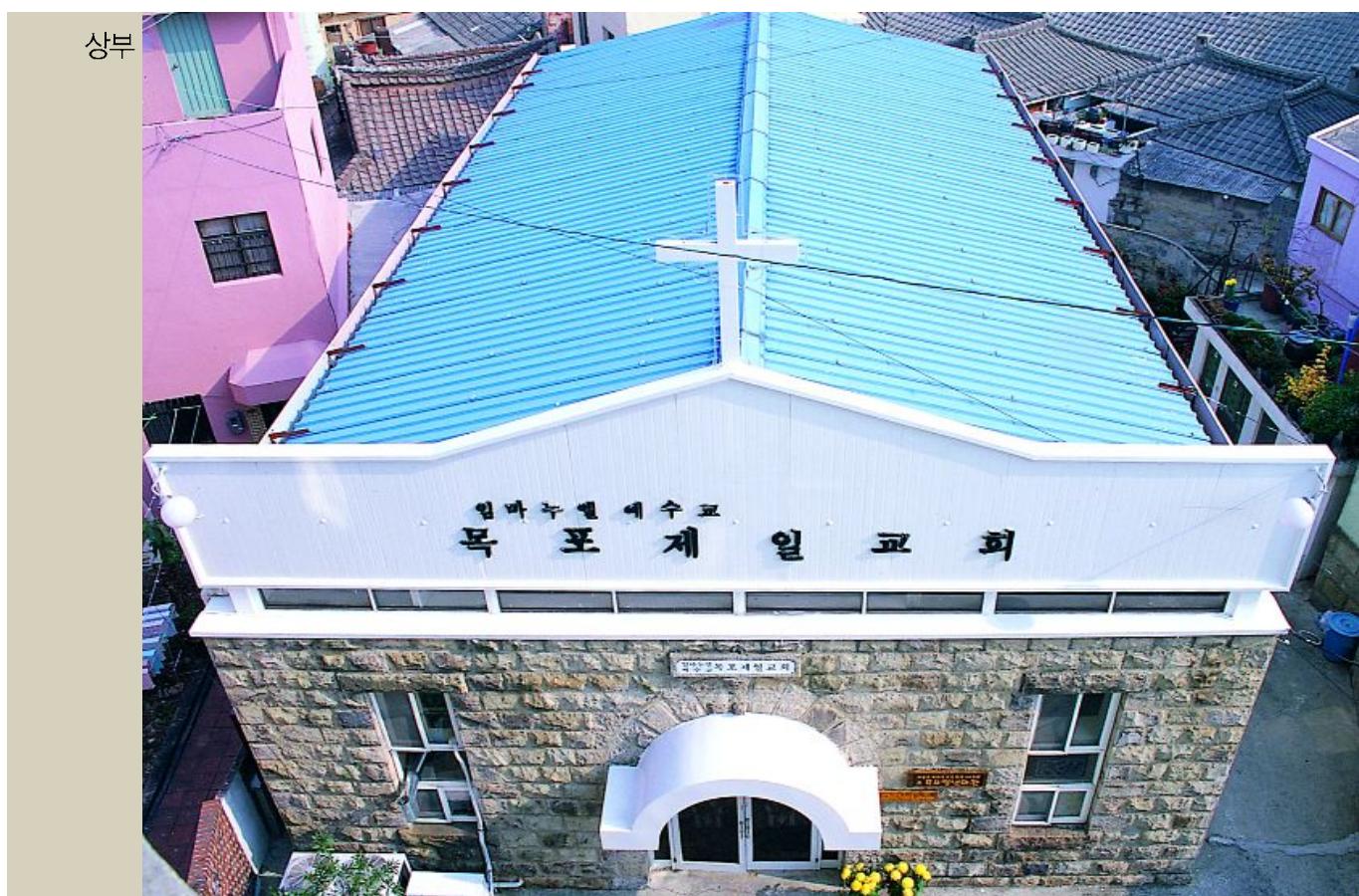
좌측면



배면



정면 출입구 캐노피





벽체 입면 상세(정면 우측부)



벽체 입면 상세(우측면)



좌측면 출입구 아치



창호

측면 상부



앞 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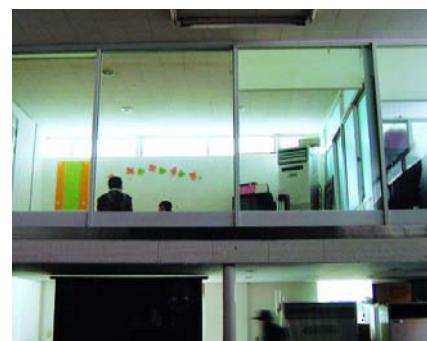
본당 내부



교육관 내부



계단실



전면 중층



대수선시(1994년 초) 벽체 모습



대수선(1994년 초) 전 모습



대수선 전 본당 내부



대수선 전 본당 강단





I. 실측조사 개요

1. 문화재 현황
 2. 조사목적 및 방법
 3. 조사일정 및 조사단

1 문화재 현황

- 1) 명칭 : 목포 구 청년회관
- 2) 문화재 구분 : 등록문화재 제43호 (2002년 9월 13일 지정)
- 3) 소재지 : 전남 목포시 남교동 80-1
- 4) 건축연대 : 1925년
- 5) 건축양식 : 근대 절충양식
- 6) 건축구조 : 석조+철재트리스(지붕)
- 7) 건축규모 :
 - 층 수 : 지상 2층
 - 대지면적 : 347.1m²
 - 건축면적 : 201.69m²
 - 연면적 : 297.73m² (1층 : 201.69m², 중2층 : 95.90m²)
 - 건물최고높이 : 6.17m(용마루)
- 8) 건축물용도 :
 - 건립당시 : 집회시설
 - 현재 : 종교 (임마누엘 목포 제일교회)
- 9) 지역지구 : 제2종 일반 주거지역
- 10) 설계자 : 미상
- 11) 시공자 : 미상
- 12) 소유자 : 임마누엘 예수교총회
- 13) 관리자 : 임마누엘 목포 제일교회
- 14) 부대시설 : 화장실 1동 (10.7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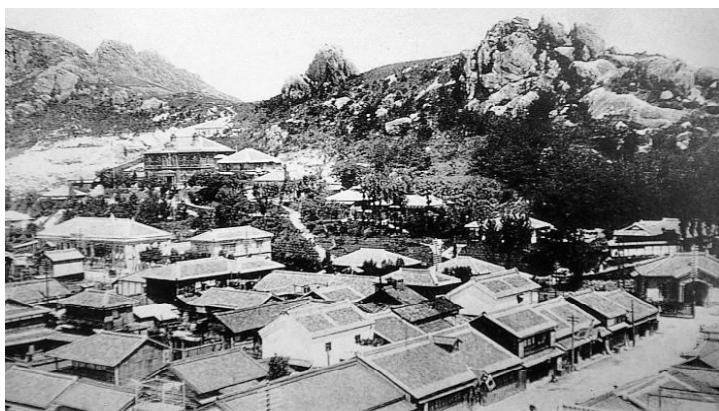


〈사진 1〉 목포 구 청년회관(현 목포 제일교회)

2 조사목적 및 방법

1) 조사목적

본 과제는 전남 목포시 남교동 80-1에 자리하고 있는 목포 구 청년회관을 실측 조사하여 건축적 기록을 하는 것이다. 건축문화재는 외부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스스로의 변형과 노후화로 인해 건립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가급적 빨리 정밀 실측하여 기록화 하는 것은 건축적 연구, 천재지변과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시 복원 및 중수 등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다.



〈사진 2〉
일제강점기 유달산 남쪽 기슭
시가지 모습.
좌측 높은 곳에 있는 건물이 일본
영사관이고 우측도로 끝 건
물이 경찰서(현 초원관광 호텔
자리)이다.



〈사진 3〉
유달산 남쪽에서 바라본 1930
년경 도시 모습.
좌측의 높은 구릉이 세종 21년
(1439년)에 설치된 목포진(木浦
鎮) 자리이다.

목포는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항구도시이다. 역사로 보면 개항(1897.10.1) 이후 급속히 발전된 년 수로 보면 100여년 남짓 된 근대도시이다. 그렇기에 조선시대의 전통건축물은 존재하지 않고 대신 근대화 과정, 특히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건축물이 많이 존재한다.

근대건축물은 시기적으로 보면 과거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와의 중간지점에 있다. 즉 전통건축에서 현대건축으로의 전이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가 아

니면 현대건축과 구별하기가 다소 어렵다. 한편 구조적으로 기능성도 떨어져 도시 한구석에 외롭게 자리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우리의 자주적인 의지로 근대화를 성숙시키지 못했다. 외국, 특히 일본인에 의한 근대화는 자연 그들의 건축으로 일관되었고 그렇기에 영광보다는 침울의 잔영만이 더 남아있다.

근대건축물은 한국 근대사의 영욕이 함께한 중요한 역사 현장이다. 훗날 우리 후손에게 체험하고 들여다 볼 수 있는 공간을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표1은 문화재로 지정된 목포의 근대건축물 현황이다. 사적 1건과 도기념물 1건, 그리고 2002년과 2004년 사이에 지정된 등록문화재 6건이 있다.

표 1. 문화재로 지정된 목포의 근대건축물

건물명	소재지	건립년도	건축형태	비고
목포시립도서관	목포시 대의동 2가 1-5	1900년	2층 조적조	현 목포 문화원 사적 제 289호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목포시 중앙동 2가 6	1921년	2층 조적조	사용안함 도 기념물 174호
구 호남은행 목포지점	목포시 상락동 1가 10-2	1929년	2층 조적조	현 조홍은행 목포지점 등록문화재 제29호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	목포시 무안동 2가 4	1930년경	단층 석조	현 목포 중앙교회 등록문화재 제114호
목포 양동교회	목포시 양동 127	1910년	단층 석조	등록문화재 제115호
목포 정명여자중학교 구 선교사 사택	목포시 양동 86-1	1900년대 초	2층 석조	현 정명여학교 100주년기념관 등록문화재 제 62호
구 목포심상고등소학교 강당	목포시 유달동 8	1910년	2층 철근콘크리트조	현 유달초등학교 강당 등록문화재 제 30호
목포 중앙동 일식 가옥	목포시 중앙동 3가 1-3	1920년	2층 목조	현 개인가옥 등록문화재 제 110호



〈사진 4〉
목포 시립도서관
1900년에 건립된
구 목포 일본영사관이다.
사적 제 289호



〈사진 5〉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전라남도 기념물 제 174호)



〈사진 6〉 구 호남은행 목포지점(등록문화재 제 29호)



〈사진 7〉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
(등록문화재 제 114호)



〈사진 8〉 목포 정명여자중학교 구 선교사 시택
(등록문화재 제62호)



〈사진 9〉 구 목포 심상고등소학교 강당(등록문화재 제30호)



〈사진 10〉 목포 중앙동 일식가옥(등록문화재 제 110호)



〈사진 11〉 목포 양동교회(등록문화재 제 115호)

2) 조사내용 및 방법

2004년 문화재청의 지원으로 실측조사를 하게 된 목포 구 청년회관은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집회시설 건축물이다. 이 건물은 목포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운동을 통하여 지어진 건물로 당시 민족의식을 보여준 소중한 건물이다.

목포 구 청년회관은 단층 석조건물로서 비록 내부는 건립초기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외형 만큼은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본 실측조사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물 연혁 조사
- 건물 입지 및 배치현황
- 건물 평면구조
- 건물 각부 입면구조
- 건물 단면구조
- 건축재료 및 공법
- 창호구성

실측조사는 크게 예비실측과 정밀실측 방법을 채택했다. 예비실측을 통해 건축물의 입지환경 분석, 건축물의 규모 파악 등을 하였다. 예비실측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가지고 수작업을 통한 정밀실측을 실시하였으며 정밀실측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촬영 등으로 보완을 하였다. 실측은 가능한 현상 그대로 하였다.

건물의 전체 기본구조부는 수평, 수직 기준선을 이용하여 좌표를 설정하였고, 각각의 부재는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세부실측을 실시하였다. 실측단위는 1/1,000m로 하였다. 실측된 자료는 가능한 현지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하였다.

본 실측조사에 활용한 도구 및 기계는 다음과 같다.

- 7m · 50m 스틸자
- 레벨 측량기
- 평판 측량기
- 휴대용 레이저 거리 측정기
- 7m 고가사다리
- 2층 비계
- 사다리차
- Nicon FM2 카메라
- 핫셀 Blade 카메라
- Canon S50 디지털 카메라

3 조사일정 및 조사단

1) 조사일정

본 조사는 크게 제1팀과 제2팀으로 나누어 각 팀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하였다. 제1팀은 인문, 사회조사 및 원고작성을, 제 2팀은 실측작업을 위주로 진행하였다. 제 1팀은 김지민, 주문기가, 제 2팀은 황혜주, 조성문이 주로 맡았다. 다음은 본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일정이다.

- 2004. 6. 9 : 문화재청과 기록화사업 정식계약
 - 2004. 6. 15 : 착수계 제출
 - 2004. 6.15~30 : 관계 문헌조사 및 실측조사 준비
 - 2004. 7. 5~10 : 1차 현장실측조사 (배치 및 입지조사, 평면실측)
 - 2004. 7.15~20 : 2차 현장실측조사 (입면 및 단면, 상세)
 - 2004. 7.25~30 : 1·2차조사 도면화
 - 2004. 8.20~25 : 추가 보완조사
 - 2004. 9. 1~10 : 최종 도면화 작업
 - 2004. 9. 15~20 : 보고서 원고(초안) 작성
 - 2004. 10. 1~30 : 보고서 편집 및 원고 최종작성
 - 2004. 11. 1~8 : 보고서 인쇄
 - 2004. 11. 10 : 보고서 난풀

※ 사지촬영은 협자 신축 조사시 습시로 촬영

2) 조사단 구성

본 식출조사의 조사지과 협조기과은 다음과 같다

(1) 실측조사 참여자

(2) 문화재청 관계자

- 유흥준 (문화재청 청장)
- 이승규 (차장)
- 김창준 (문화유산국 국장)
- 이상필 (근대문화재과 과장)
- 최창락 (근대문화재과 토목사무관)
- 김광열 (근대문화재과 건축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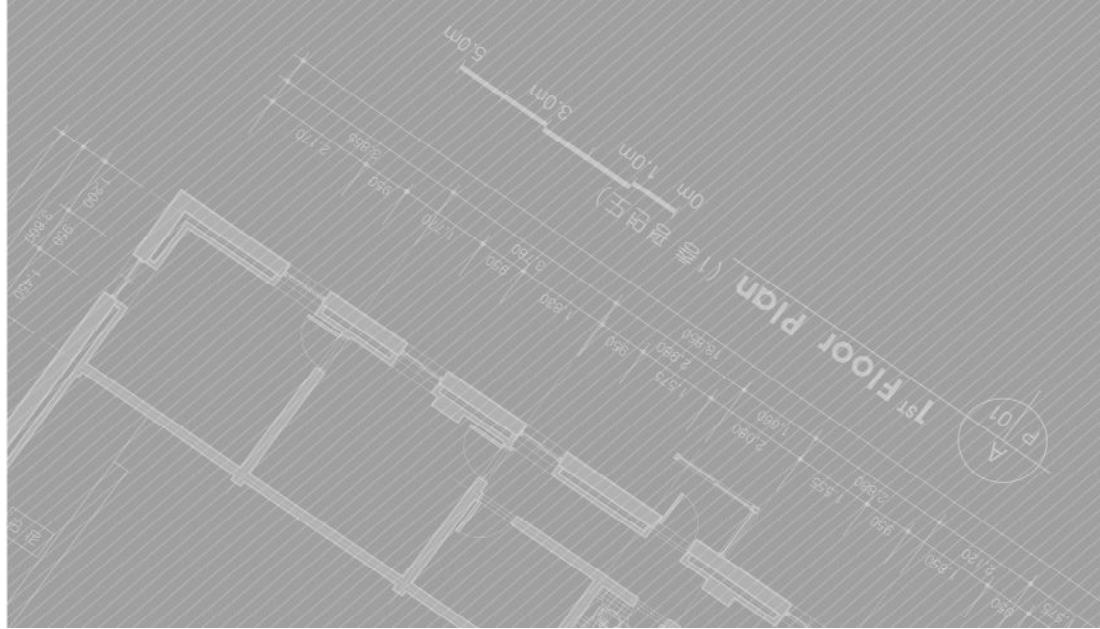
(3) 협조처

- 임마누엘 목포 제일교회
- 광주 좋은건축 건축사 사무소(최민용 건축사)
- 목포문화원
- 목포시청 문화관광과



II. 연 혁

1. 목포의 청년운동
2. 목포 구 청년회관 연혁



1 목포의 청년운동

목포의 청년운동은 1920년 5월 9일 목포간이상업학교에서 80여명이 모인 창립총회를 계기로 시작되었다.¹⁾ 청년회 창립의 목적은 지육과 체육의 향상, 발달을 도모하는데 있었다. 다음은 당시 청년회 설립 취지 및 활동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목포청년회칙 제1장 내용이다.

제1장 명칭 및 목적 위치

- 제1조 본회는 목포청년회라 부른다.
- 제2조 본회는 지식계발 돈의 친목 체육장려의 목적으로 함.
- 제3조 본회의 위치는 목포부내에 둠.
- 전향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실행함.
 - 1. 신문 잡지 기타 도서를 비치하여 회원에게 이를 종람케 함.
 - 2. 강연 및 토론회를 수시 개최함.
 - 3. 잡지를 간행함.
 - 4. 지육(智育)에 필요한 오락기구를 비치함.
 - 5. 본 회원 중 경사질고(慶事疾苦)가 있을 때는 치하 위문함.
단 금전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는 십원 이내로 함.
 - 6. 본 지방에 내거(來居)하는 명사를 위하여 환영 또는 송별의 의식을 행함.
 - 7. 정구 야구 축구 등의 운동을 수시 열되 매년 춘계로 대운동회를 개최함.

거의 같은 시기에 목포에는 기독청년회, 천도교청년회, 목포수양회, 목포여자수양회 등이 결성 되었다. 이들 청년단체들은 주로 강연회, 토론회, 운동회 등의 활동을 펼쳤다. 1920년 5월 26일에는 목포청년회가 주최한 대운동회가 목포보통학교 교정에서 열렸다. 같은 해 9월 2일에는 목포청년회, 기독청년회, 천도교청년회 3단체가 연합으로 양동교회에서 강연회를 열었다. 목포청년회는 매월 첫째 토요일을 월례강연회의 날로 정하고 강연회와 토론회를 열었는데, 그 주제는 시대와 청년 등 계몽적인 것이었고, 연사는 청년회의 간부들이 맡았다. 목포청년회는 또 1921년 10월 노동야학회를 개설하여 150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을 가르쳤다.²⁾

1) 목포청년회 조직에 관한 1920. 5. 15일자 동아일보 기사

木浦青年會 組織

한동안 木浦青年의 頭腦에 往來하던 木浦青年會는 金商燮, 金宅鉉, 金健植, 車南鎮, 車大均, 李尙斌, 金演植等 諸氏의 發起로 去八日夜 竹洞 金宅鉉氏家에 發起人會를 開하고 翌九日日曜에 木浦簡易商業學校에서 總會를 開한 結果 會員이 八十餘名인데 其趣旨의은 智育體育의 向上發達을 圖함에 在하고 其實行方法은 智育에 關 하이는 新聞雜誌, 書籍, 圖書를 購設하여 會員으로 하여금 縱覽케하며 또 雜誌를 發刊하고 體育에 關하이는 庭球, 野球, 跳球等을 通常運動費具로 定하야 年春秋二回의 大運動會를 舉行할 計畫이오不久에 青年會館을 建築할 豫定으로 決議하고 會員이 爭先義捐하니 其額이 既히 五千六百六十餘圓에 達하고 任員은 左와 如히 選定하였는대 規則은 目下修正中이다라.

2) 박찬승 외, 「목포개항백년사」, o208, 1997, 목포백년회.

목포청년회가 이같이 보수적인 지배층의 청년회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주의적 성격을 지닌 무산청년회(無產青年會)가 1924년 9월 목포에서도 등장하였다. 다른지역은 대개 기존의 청년회를 개혁하여 보수적 청년회가 진보적 청년회로 탈바꿈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목포의 경우에는 기존의 청년회를 그대로 놓아두고 새로운 청년회가 조직된 것이다. 무산청년회의 창립일자와 간부 명단은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그 주요 멤버가 강석봉·배치문(裴致文)·박승억(朴勝億)·조국환(曹克煥) 이었음을 확인된다. 이들은 9월 30일 당시 사회문제화 되고 있던 보천교(普天敎) 성토연설회를 개최하였고, 또 야학강습 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강석봉은 3·1운동 당시 정명여학교 한문교사로서 적극 참여하여 구속 기소된 전력이 있었고, 배치문도 3·1운동 당시 구속되어 1920년 4월 정치범 특사시 석방된 전력이 있었다. 진보적 성격의 청년회로서 목포 인근에서 암태도의 암태청년회, 비금도의 비금청년회, 도초도의 도초청년회, 자은도의 자은 청년회, 임자도의 임자청년회, 해제의 해제청년회, 지도의 지도청년회 등이 속속 조직되었다. 이에 이들 청년회의 역량을 결집하자는 의론이 일어나 1925년 1월 10일 남교동 희성유치원에서 무목청년연맹(務木青年聯盟) 창립대회가 열렸다.³⁾

2 목포 구 청년회관 연혁

목포 구 청년회관 건물은 일제강점기 목포 청년들이 펼쳤던 민족운동의 산실로 주목되는 유적이다. 목포에서는 1920년 5월 9일 목포청년회가 조직되는 것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청년운동이 펼쳐지게 된다. 1927년 신간회 목포지부 창립식도 이곳에서 있었다. 일제강점기 이러한 청년운동의 중심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청년회관이다.

청년회관의 신축 공사비는 당시 목포부 시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충당했다. 목포 청년회는 1924년 4월부터 회관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을 펼쳤는데 그 총액이 7,000만원 이었다⁴⁾. 그 중 2000만원으로 현재의 부지 100여 평을 매입하고 공사

3) 박찬승 외, 「목포개항백년사」, 0220, 1997, 목포백년회.

4) 당시의 상황을 동아일보(1924. 8. 5)가 다음과 같이 상세히 보도하였다.

木浦青年活動
義捐金募集이 七千餘圓
來月一日부터 會館建築

木浦青年會 理事 十餘名은 今年 四月中旬부터 每日 總出動의 热誠을 備하야 地方人士의 義捐金을 募集한 것이 七千餘 인데 그 中에 二千圓은 會館基地로 南橋洞 中央地帶의 一百餘坪을 買受하였고 去二日 下午八時에는 會館建築臨時事業所인 竹洞 濟衆醫院內 任員會를 開催하여 會館建築 義捐金 整理의 件, 同建物工事 開始의 件, 定期總會 召集의 件 等을 協議하였는데 會館建築工事 着手는 九月一日로 確定하였다(木浦)

는 1924년 9월 16일에 들어갔다. 시공자는 입찰로 선정하였는데 낙찰은 일본인 藤尾 이었다.⁵⁾ 규모는 57평(신문기사)으로 이는 현재의 면적과 비슷하며 구조는 석조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이 가는 것은 청년민족운동의 본부격인 전물을 짓는데 일본인에게 공사를 맡겼다는 사실이다. 당시 시공자 선정에 있어서는 감정을 떠나 상당히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쳤던 것으로 여겨진다.

공사는 3개월 보름만인 같은 해 12월 30⁶⁾일에 끝났으나 준공식 및 축하연은 다음 해인 1925년 4월 23일에 있었다.⁷⁾

한편 청년회관의 개·보수 시에도 그 비용을 자발적인 행사를 마련하여 충당하였는데 이에 관해 동아일보(1933. 4. 21)에서는 크게 기사화하기도 했다.⁸⁾ 즉 신춘 음악회를 개최하여 1,202만원의 보수비용을 마련하였다.

1940년 1월 28일에는 청년회관 전물과 대지 모두를 목포상업전수학원에 기부하는 일을 생겼다. 이 학원은 3년제 실업학교로 승격하는데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회관 자산 모두를 교육사업에 기부했

5) 1924. 9. 21자 동아일보 기사

木浦青年會館
建築工事着手

四五年間 懸案中이든 木浦青年會館 問題는 同會 幹部 諸氏 努力한 結果 基地은 既히 埋築인 市內 南橋洞 中央에 定하고 石材造平家 五十七坪의 建物을 理想의 制度로 建築할 事를 曇日한 任員會에서 決議하였음으로 日本人 藤尾에게 落札이 되어 去十六日부터 工事에 着手하였다고(木浦)

6) 1925. 1. 9일자 동아일보기사

木浦青年會館 竣工

昨年 五月頃에 木浦青年會 幹部 諸氏의 活動으로 各 人士의 热烈 同情이 八千餘圓의 基金을 造成하였음으로 昨年 九月初에 府內 南橋洞 中央에 基地를 標定하고 石材平家 五十七坪의 大建物을 新築中이던 바 지난 十二月 三十日에 竣工하였다고(木浦)

7) 1925. 5. 28일자 동아일보기사

木浦青年會館 落成式과 祝賀競技

木浦青年會가 誕生되야 임의 六個 星霜을 지내여 왓스나 恒常 會館이 업서서 業務進行上 無數한 困難이 있음을 遺憾으로 生覺하는 同會 幹部 車南鎮 金命峻 等 諸氏가 同會館 建築을 為하여 努力한 結果 萬餘圓의 同情金을 得하야 昨年 九月부터 新築工事에 着手하여 今年 三月에 竣工이 되었는데 去月 二十三日 下午 二時에 同 會館內에서 落成式을 舉行할 때에 雲集하는 來賓 及 會員은 百餘坪의 室內에 立錐의 餘地가 没시 着席하야 大盛況裡에서 式을 舉行하고 萬歲三唱으로 同五時에 散會하였는데 그 翌日에는 午前 八時부터 當地 公立普通學校 運動場에서 本會館 新築落成式을 祝賀하기 為하야 青年大運動會를 開催하고 五六百名의 競技者는 數千名 觀客의 包圍內에 五尺一寸의 高跳와 二十里 以上的 長距離 競走 變裝行列 四回 以上的 廣跳外 二十餘 種類의 競技로 一般 觀衆에게 만족 興味를 與하였다고(木浦)

8) 木浦青年會館 修築 音樂

寄附 一千二百圓

近日中 工事 着手

(목포) 오랫동안 풍미 우세로 해를 거듭하여 모든 목포청년회관(木浦青年會館)은 옛날에 그 위관을 볼 수 없으리만큼 처참한 형식을 남기고 존폐문제에 잇잇다. 그러나 이를 수축하기 위하여 여러 해를 거듭하면서 청년회 관계자들은 노력해야 왔으나 아모런 성과를 얻지 못하고 모든 바 지난 八일 목포의 각 실업단체로 목포문옥조합(木浦問屋組合)의 9개 단체 연합 주최로 목포청년회관 수축위원회(木浦青年會館修築委員會)를 조직하고 수축자금을 얻기 위하여 신춘음악대회(新春音樂大會)를 지난 十七일에 목포극장(木浦劇場)에서 개최하는 일방 각 단체의 책임위원회들은 능동적으로 十여일을 두고 입장권 예매에 불철주야로 활동한 결과 음악회 당야까지 수입된 금액이 一천二백二원에 달하여 예기 이상에 좋은 성과를 얻고 불일간 공사에 착수하리라는데 일반 인사의 기부금은 다음과 같다.

던 것이다.⁹⁾

해방이후 이 건물이 어떻게 사유화 됐는지는 기록이 없어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1954년 8월 12일에 현재의 임마누엘 제일교회가 들어오기 전에는 한때 화장품 공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 건물은 1994년 3월 김규철 목사(1992년 5월 3일 부임) 주도로 석조벽체만 남기고 지붕구조까지 완전 해체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사진 12〉 대수선을 위한 지붕 및 부속사 철거 모습(1994년 초)



〈사진 13〉
지붕철거 후의 벽체 모습

9) 1940. 2. 4 동아 일보 기사

木浦青年會館 基地를 商專에

각 基金을 木浦協會總會서 決議

(木浦) 목포상업전수학원(木浦商業專修學院)은 十여년전 목포중학원(木浦中學院) 후신으로 아래 파란민은 역사를 남겨 오면서 만흔 종순을 배양하여 왓으나 동교는 六개월 내에 강습소(講習所) 인가(認可)를 밟지 안흐면 개교할 형편이 못됨으로 동교 리사회(理事會)에서 작년 六월 五일 三년제 실업학교(實業學校)로 승격운동을 일으켜 승격기금 五萬원을 목표로 지금까지 리사회 전원이 총동원으로 불면을 위하여 맹렬히 활동을 계속하여 오듯 바 동부민의 지지를 바티 四萬二千여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왓으나 당국에서 그월 十일 기일절을 기하야 五萬원의 재원을 맨들도록 종용한 바 있어 부족되는 근 萬원의 기금을 당시일에 구처할 길이 없어 못처럼 서광이 뵈이려는 동학원 승격운동이 암담하는 차제 조선인으로 조직된 목포협회(木浦協會)에서 관리하고 잇는 청년회관(青年會館)과 기지(基地)전부를 목포상업전수학원 승격기금에 제공하자는 회원들에 의견이 일치되어 목포협회 총회를 지난달 二十八일 오후 八時 목포상업전수학원에서 김성호(金聲浩)씨를 사회로 개최하고 동 청년회관과 기지 전부를 승격기금으로 기부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하고 즉석에서 실행의원 五씨를 선정하여 동 청년회관에 연고자(緣姑者) 제씨에게 랑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은 다음 정식으로 전수학원 리사회에 인계하기로 되었다는데 전기 청년회는 十五年전 조선사람의 손으로 석조(石造)로 맨드려진 역사 깊은 건물로 목포 조선인사회에 유일에 보물이 되고 재산이 되는 건물이 교육사업에 더욱 의미 있게 사용하게 되는 만큼 일반의 감격을 미지안은 바 실행위원 제씨는 다음과 같다.

실행위원 金聲浩 崔有山 金哲根 吳泰準 諸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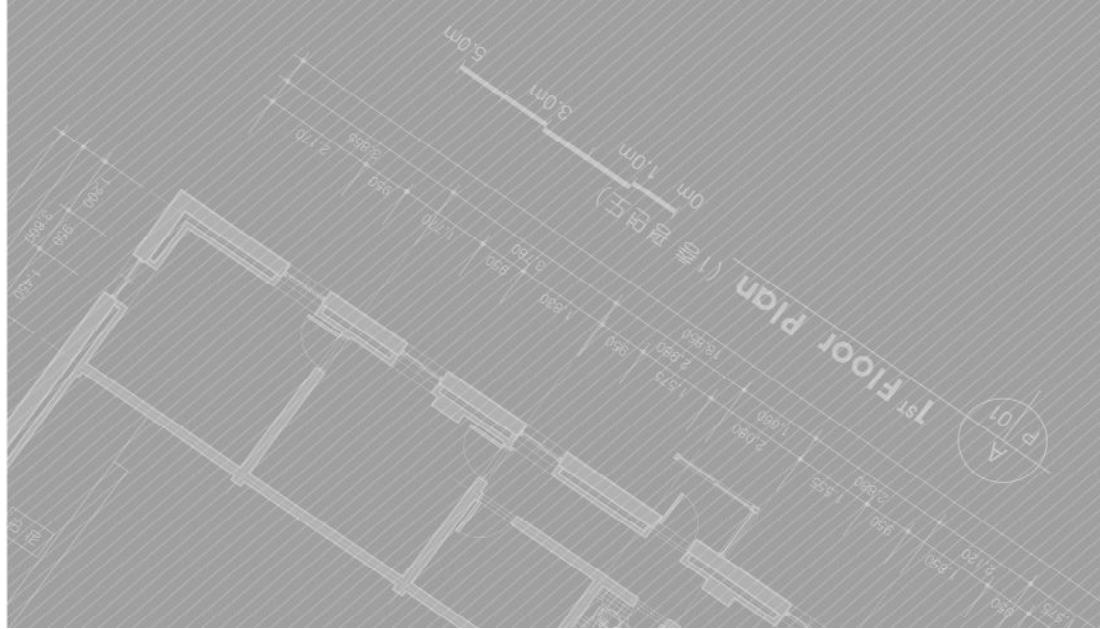
표 2. 목포 구 청년회관 주요 건축연혁

일자	내용
1922. 9. 3	임시총회, 최초로 건립관련 논의
1922. 9. 30	임원회, 회관건축을 위한 고문추천
1922. 12. 9	회관건축 기성회고문 및 임원회의
1923. 6. 10	이사회, 회관건축 문제 토의
1924. 4.	청년회관 건립 모금 시작
1924. 8. 2	임원회(제중의원), 모금액 7천여원 중 2천원으로 회관 부지 100여평 매입
1924. 9. 16	공사 착공, 시공자 : 藤尾, 공사액 : 8천여원
1924. 12. 30	공사 완공
1925. 4. 23	청년회관 신축 낙성식
1933. 4. 8	청년회관 수축위원회, 목포 운동조합 등 9개 단체 참가
1933. 4. 17	청년회관 수축을 위한 신춘음악회. 장소 : 목포극장, 수입금 : 1202원
1940. 1. 28	청년회관 건물과 대지 모두를 목포상업전수학원의 3년제 실업학교 승격기금으로 기부
1954. 8. 12	임마누엘예수교에서 인수. 목포 제일교회로 사용
1994. 3. 25	건물 대수선



III. 건축 및 실측조사

1. 입지환경 및 배치
2. 평면구성
3. 입면구성
4. 건축구조 및 재료



1 입지환경 및 건물배치



〈사진 14〉 일제강점기 한국인이 주로 살았던 유달산 기슭의 남교동 일대(1910년경).
훗날 이곳에 청년회관이 건립된다.

목포 구 청년회관은 유달산 북동쪽 산록의 거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곳은 북교동, 남교동 지역으로 옛부터 한국인이 살던 마을이다. 남교동 일대에는 현재도 1920·30년대에 건립된 비교적 큰 규모의 근대 개량한옥이 여러채 있다. 그러나 당시 서민들이 살던 가옥은 대부분이 훼철 내지는 크게 보수가 되어 원형을 볼 수 있는 서민가옥은 거의 없다.

일제강점기 일본 조계지구는 새로운 도시설계기법으로 조성되어 도로망 및 상·하수도 시설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었다. 반면에 이곳은 거의 자연 경사도에 따라 택지가 부정형으로 조성되고 도로도 매우 좁게 개설되었다. 해방 이후로도 큰 변화가 없어 현재도 ‘골목길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본 건물이 위치한 주변은 필지가 30~50평 정도로 작고 부정형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그나마 구 청년회관 자리는 100여평으로 비교적 큰 편이다.

본 건물이 들어선 곳은 평지이다. 대지 형상은 남북 보다 동서가 약간 긴 부정형이다. 대지 북쪽과 동쪽은 1,2층 정도의 주택들이 면해 있고 서쪽과 남쪽은 좁은 골목길로 면해 있다. 특히 입구 좌측면에는 5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 있어 본 건물의 시야가 크게 막혀있다. 본 건물의 출입문은 폭 4~5m정도의 서쪽 길에 접해 있고 따라서 장방형 건물의 출입현관도 서쪽에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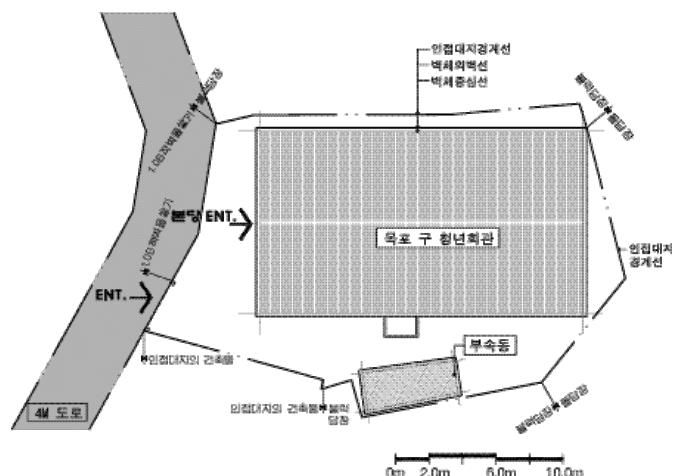
〈사진 15〉 남교동의 근대 한옥



〈그림 1〉 목포 구 청년회관 위치도

대지가 좁고 외부공간은 별로 넓지가 않다. 건물전면에 앞마당 격으로 약간의 외부공간이 형성되어 있고 우측으로는 별도의 화장실과 사택(건물 1층 우측면)으로 통하는 동선이 있다. 건물 좌측면(북쪽)은 담장과 1m 이내로 바로 면하여 있어 통행이 매우 어렵다. 그러나 건물 좌측면에도 출입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과거에는 북쪽으로도 어느정도 외부공간이 확보됐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의 80-1번지는 1954년에 북쪽 인접대지(80번지)에서 분할된 것이다.

전면 담장은 현재 1.8m 높이의 상부가 투시형으로된 붉은벽돌담장인데 이는 1994년 건물 대수선시 새롭게 축조된 것이다. 그 이전에는 매우 높은 육중한 석조담장이었다.



〈그림 2〉 배치도



〈사진 16〉 목포 구 청년회관 주변



〈사진 17〉 목포 구 청년회관 입구



〈사진 18〉 현 전면 담장



〈사진 19〉 옛 담장과 교회정문

2 평면구성

목포 구 청년회관은 중층이 있는 단순한 강당형 평면이다. 당시 집회시설로 건립된 건물답게 단변과 장변의 비율이 1:1.76이다. 따라서 현재도 종교시설(교회)로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이다.

1층은 본래 전체가 트여져 있었으나 1994년 건물 대수선시 우측의 1/3지점 전체를 벽돌로 막아 목사 사택으로 꾸미고 나머지 만을 교회 본당으로 꾸몄다. 목사 사택은 본래 건물 우측면 중앙에 맞대어 지은 흙벽돌 집이었다. 현재 강단은 본당바



〈사진 20〉 교회 본당 내부

닥과 1단 차이만으로 구별되어 있으나 보수전에는 좌·우로 준비실이 있고 상부가 막혀져 있는 현재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그러한 모습이 신축당시의 모습인지 아니면 1954년 교회가 들어선 후 보수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교회 본당 출입구는 서측 중앙에 있고 사택 출입구는 우측에 있다. 본래 좌측 중앙 쪽에도 출입구가 있었는데 현재는 벽돌로 막아 폐쇄되어 있다. 사택에는 부엌과 화장실, 그리고 방이 4개 드려져 있다.

중층은 교회 본당 출입구 쪽에 약 4m 폭으로, 그리고 목사 사택 위로 설치되어 있다. 현재 유아실, 교육관, 서재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1994년 대수선 이전에는 출입구 쪽 위로만 중층



〈사진 21〉 중층 유아실



〈사진 22〉 1층 사택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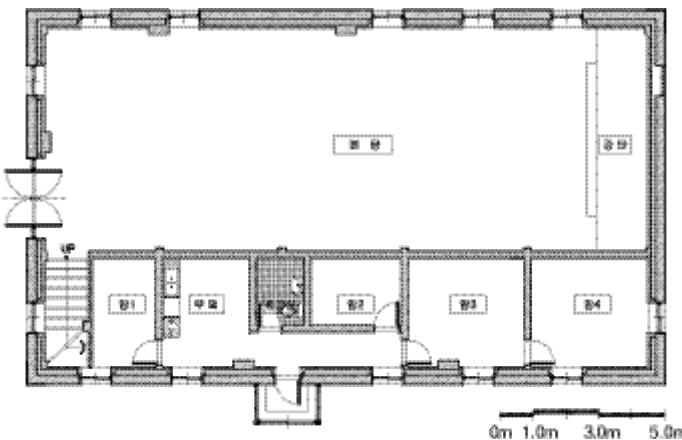


〈사진 23〉 중층 교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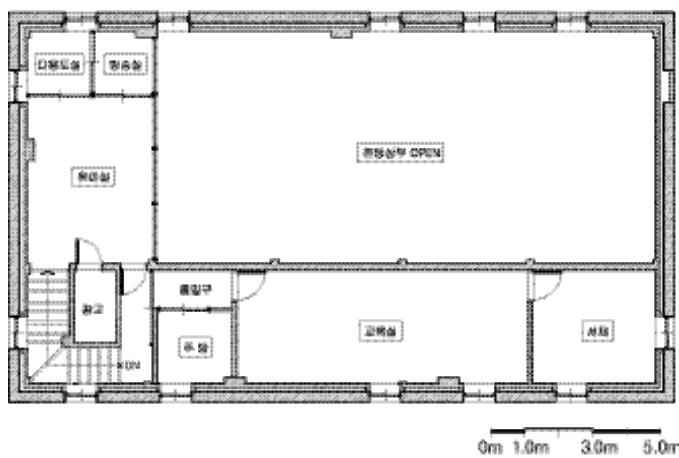
이 있었다. 당시 바닥은 다다미가 깔려 있었고 강단 쪽으로는 6짝 목재 미서기문이 설치되어 있었다.

표 3. 목포 구 청년회관 실별면적표

구분 층별	실 명	면 적		비 고
		m ²	평	
1층	본 당	133.83	40.50	
	계 단 실	5.67	1.71	
	부 역	10.36	3.13	
	화 장 실	3.76	1.13	
	복 도	6.17	1.86	
	방1	7.63	2.30	
	방2	6.76	2.04	
	방3	13.60	4.11	
	방4	13.87	4.19	
중2층	소 계	201.65	60.97	
	계 단 실	11.23	3.39	
	출 입 구	3.05	0.92	
	서 재	13.87	4.19	
	교 육 관	31.35	9.48	
	주 방	5.40	1.63	
	유 아 실	20.24	6.12	
	방 송 실	3.50	1.05	
	다 용 도 실	4.20	1.27	
	창 고	3.06	0.92	
합 계		308.8	93	



〈그림 3〉 1층 평면도



〈그림 4〉 중2층 평면도

3 입면구성

목포 구 청년회관은 평면의 단순성으로 인해 입면구성 역시 전체적으로 단순명료하다. 즉 특별한 디자인 요소 없이 각 부분이 기능적으로 처리되어있다. 이러한 형태를 갖게 된 것은 당시 이 건물이 종교 등 치장성을 요하는 건물이 아닌 단순한 집회시설이었고 또한 건축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된 것이기에 화려하고 복잡한 건물로 계획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건물의 입면은 크게 몸체와 지붕부분으로 구분된다. 몸체부분은 기단부 설치 없이 바로 지면에서 높이 30cm정도의 석재를 가공하여 쌓았다. 현재 지반에서 몸체상부까지 정면과 우측에서는 15단, 후면에서는 16단, 그리고 좌측 뒤쪽에서는 17단이 보인다. 정면과 우측면이 덜 보이는 것은 이쪽 바닥이 현재 마당으로 되어있고 이는 1994년 건물 대수선시 바닥 포장을 원래 지반보다 높게 하였기 때문이다.

정면은 정중앙에 출입구를 두었고 그 좌·우측으로 같은 크기의 수직창(950×



〈사진 24〉 건물 정면

2,390)이 하나씩 있다. 출입구 상부에는 중앙의 이맛돌, 좌·우로 각각 6개의 석재를 쌓은 반원 Arch를 두었다. 현재 이 Arch아래로 철판으로 된 돌출 캐노피가 있는데 이는 1994년 대수선시 새로 설치한 것이다. 본래의 캐노피는 포치 형식으로 별도의 2개 기둥을 앞쪽에 세우고 상부에 스라브 지붕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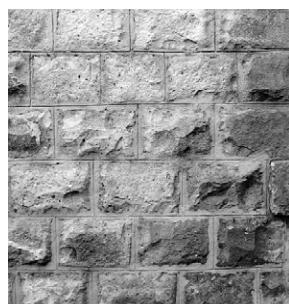
좌측면은 정면과 같은 크기의 수직창이 5개가 설치되어 있고 출입구도 2곳에



〈사진 25〉 건물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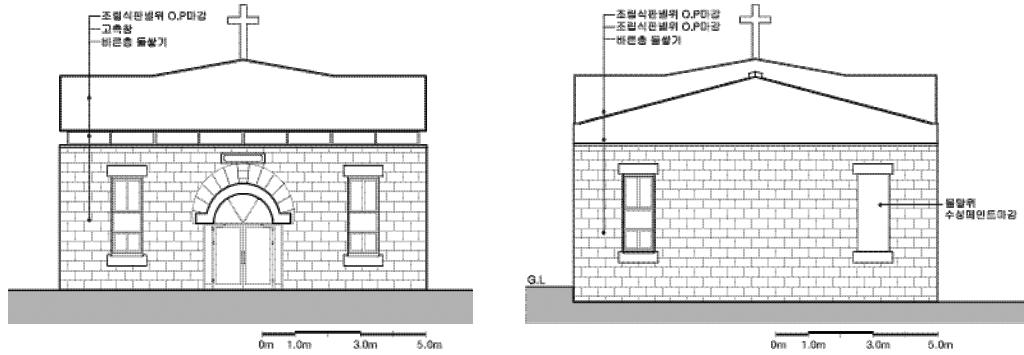
〈사진 26〉 좌측면 출입구 상부 아치



〈사진 27〉 우측면 벽체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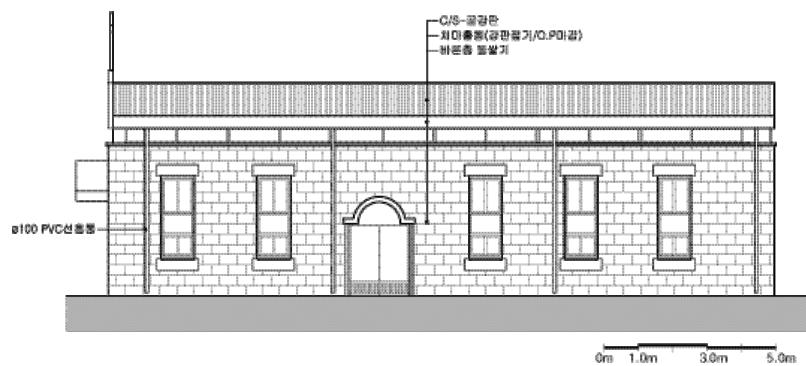
나 있다. 맨 끝 출입구는 외여닫이문이 설치되어 있고 상부로는 석재 수평인방이 있다. 현재 이 문은 폐쇄되어 있다. 중앙의 출입구 상부에도 반원형 Arch가 설치되어 있는데 정면보다 Arch돌 수가 6개적은 7개로 되어있다. 현재 이 문은 벽으로 완전히 막아 내부에서는 문이 있는지도 모르게 되어있다.

우측면도 좌측과 같이 5개의 수직창이 설치되어있다. 중앙에는 현재 1층 사택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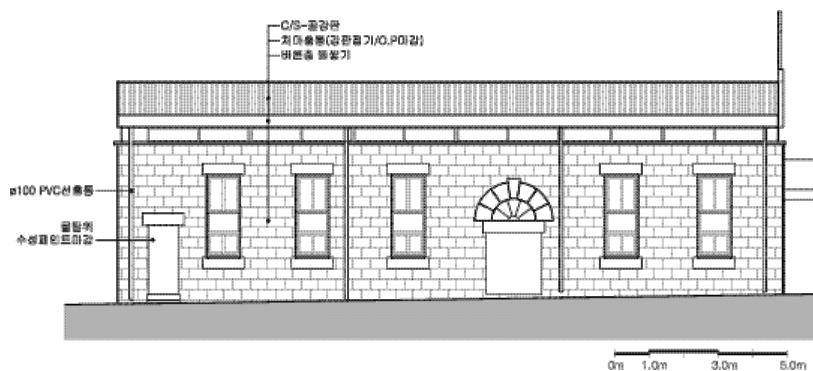


〈그림 5〉 정면도

〈그림 6〉 배면도



〈그림 7〉 우측면도



〈그림 8〉 좌측면도

현관 출입문이 나있다. 후면에는 좌·우측에 2개의 수직창이 있다. 창 크기는 정면과 같다.

본 건물의 모든 창 상·하로는 잔다듬한 수평인방이 설치되어있다. 지붕면은 박공형식이며 벽체와 지붕 처마선 사이로는 채광을 위한 공간을 두었고 그 사이는 현재 알미늄샷시 고정창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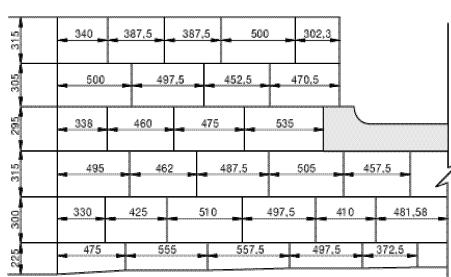
〈사진 28〉 벽체 상부와 측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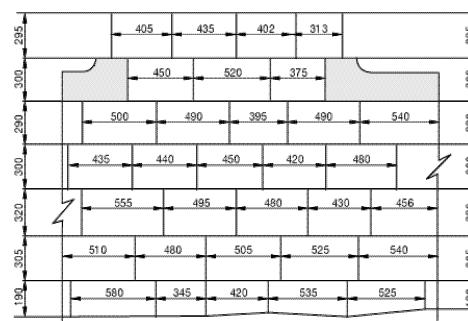
〈사진 30〉 창호 하인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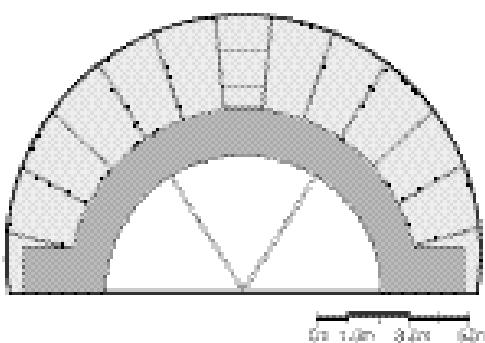
〈사진 29〉 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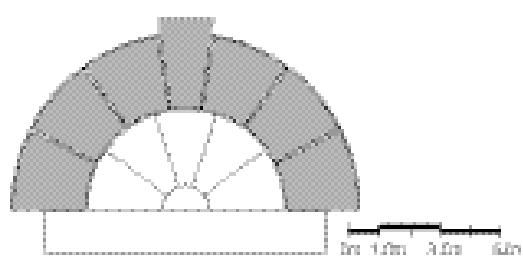
〈그림 9〉 돌 나누기 상세(정면 현관우측 하단부)



〈그림 10〉 돌 나누기 상세(좌측면 뒷쪽 하단부)



〈그림 11〉 정면 출입구 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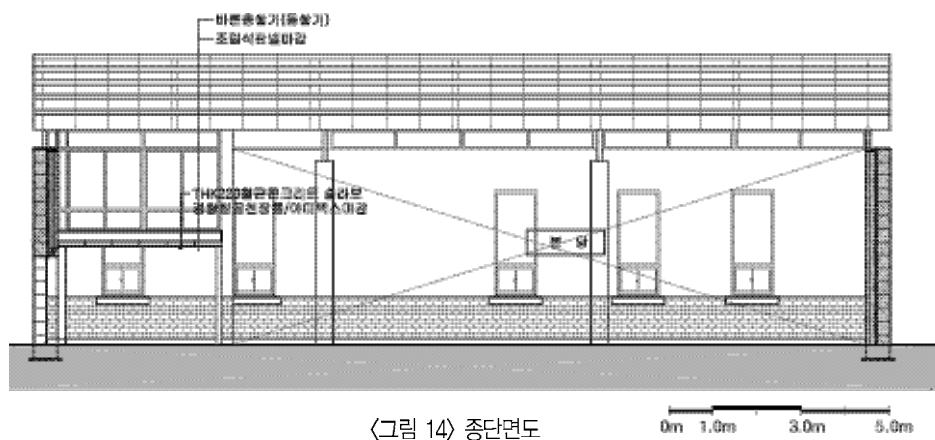
〈그림 12〉 좌측면 출입구 아치

4 건축구조 및 재료

목포 구 청년회관의 건축구조는 조적조이다. 화강석 계통의 다듬은 돌을 바른층 쌓기로 하여 장방형의 외벽을 내력벽으로 하여 지은 건물이다. 건축 당시 내부에 내력벽이나 칸막이 같은 비내력벽은 없었고 다만 강단 좌우 준비실 쪽에만 벽체가 있었다. 그리고 정면 출입구 상부로는 목조로 중층공간이 있었다. 현재는 1994년 대수선시 1층 사택과 중층의 교육실과 서재 부분에 벽돌로 칸막이벽이 설치되어 있다.



〈그림 13〉 횡단면도



〈그림 14〉 종단면도

건축당시 실내벽은 전통한옥의 벽체처럼 콜대와 수수깡을 이용한 흙벽에 회벽마감으로 되어있었다. 현재는 50mm단열재(스치로폼)2개를 넣고 붉은벽돌 1.0B쌓기로 되어있다. 현재 창대 하부까지는 붉은벽돌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나 그 위로는 미장 후 수성페인트(흰색)로 마감되어있다. 내부 바닥은 인조석 물갈기로 되어 있

고 천장은 석고텍스로 마감되어 있다. 1층 사택은 벽지 마감 등 일반 살림집처럼 내부가 꾸며져 있다.

천장과 지붕은 현재 철재 트러스 구조에 골 철판으로 마감되어 있다. 그러나 본래는 목조 지붕틀에 스레이트로 지붕이 마감되어 있었다. 즉 한옥의 3량 구조식으로 단변으로 큰 보가 걸리고 그 위에 대공이 있고 그 위에 도리가 장변 방향으로 올려져 있었다. 큰 보는 내부에 3개가 있었다.¹⁰⁾

본 건물에 사용한 석재는 화강암이다. 강도는 단단한 편이 못되고 색은 그리 밝은 편이 못된다. 크기는 높이와 두께는 300mm내외이고 가로는 그 크기가 일정치 않으나 320mm에서 560mm사이로 여러 종류로 가공되어 있다. 면은 매우 거친 혹두기로 4면 모서리 기준으로 대략 70~80mm정도가 돌출되어 있다. 건물 후면은 다른 곳보다 혹두기가 약하다. 아치돌과 창인방은 잔다듬으로 되어있다.



〈사진 31〉 보수전 교회 강단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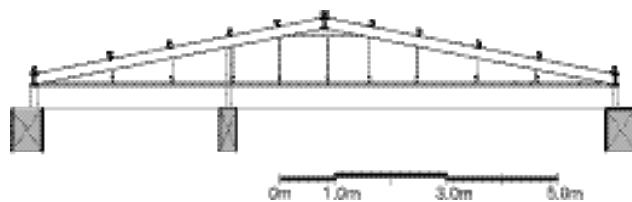
〈사진 32〉 강단 후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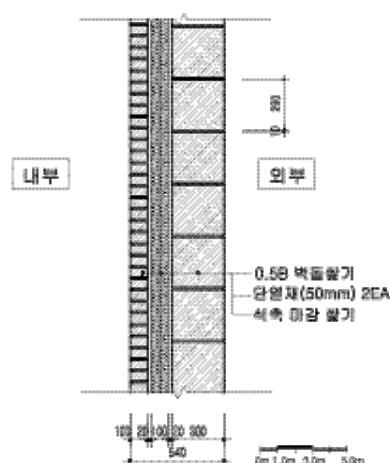
〈사진 33〉 지붕 철재 트러스

목포에는 일제강점기에 지은 석조건물이 여러 채 있었으나 현재는 거의 사라지고 없다. 없어진 대표적인 것이 조선은행 목포지점(1924년)과 죽동교회(1935년)이고 현존하는 것 중 중요한 것은 정명여학교 내 구 선교사사택과 교사일부, 양동교회, 동본원사 목포별원(현 중앙교회) 등이다. 이들 건물에 사용된 석재는 주로 목포시 산정동 현 중앙하이츠 아파트 뒷편 석산에서 채석된 돌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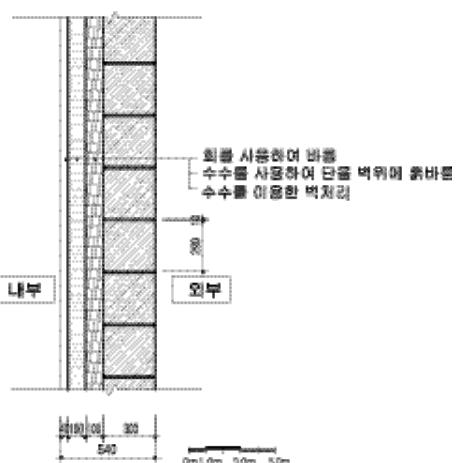
10) 현 제일교회 김규철목사 고증. 1994년 해체 수리시의 모습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음. 보와 도리 등이 무척 컸었고 나무가 너무 아까워 책상 등 가구를 제작하고 싶었다고 함.



〈그림 15〉 트러스 구조도



〈그림 16〉 벽체 단면 상세도(현재)



〈그림 17〉 벽체 단면 상세도(보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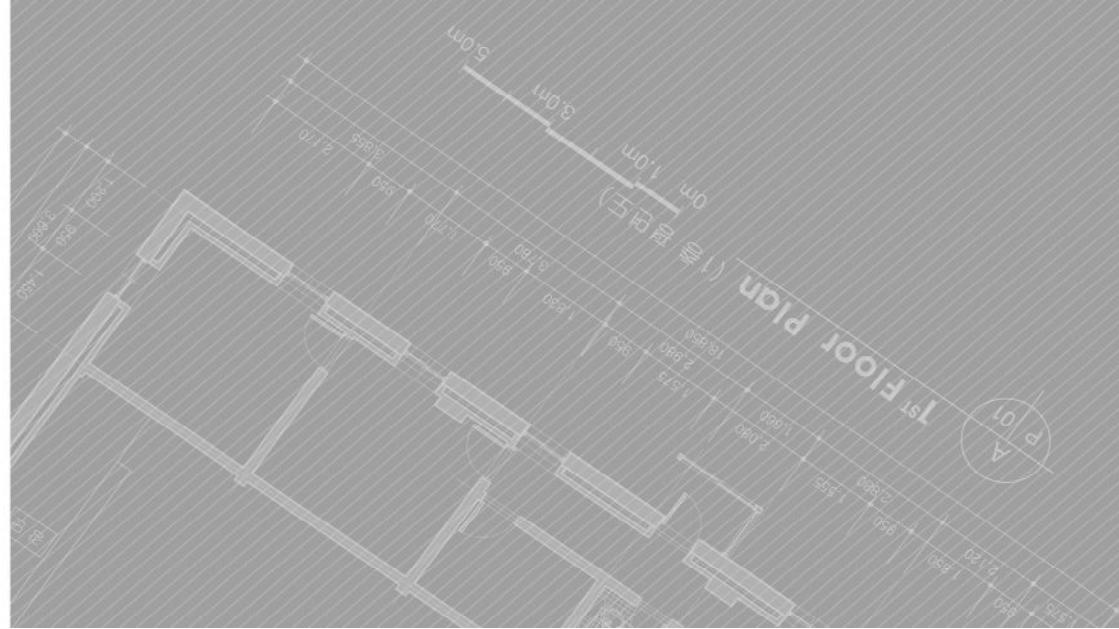
표 4. 목포 구 청년회관 실내재료 마감표

구분		바 닥	걸레받이	벽	천 장
1층	본당	인조석 물갈기	미장위 수성페인트	하부 : 적벽돌 상부 : 미장위 수성페인트	텍스
	계단실	디럭스 타일	미장위 수성페인트	미장위 수성페인트	텍스
	부엌	비닐계 장판	.	벽지	벽지
	화장실	자기질 타일	.	자기질 타일	비닐계 판
	복도	비닐계 장판	.	벽지	벽지
중층	방 1,2,3,4	비닐계 장판	.	벽지	벽지
	계단실	디럭스 타일	미장위 수성페인트	미장위 수성페인트	텍스
	서재	비닐계 장판	.	미장위 수성페인트	텍스
	교육관	비닐계 장판	.	미장위 수성페인트	텍스
	주방	시멘트 몰탈	.	미장위 수성페인트	텍스
	유아실	비닐계 장판	.	미장위 수성페인트	텍스
	미술실	비닐계 장판	.	미장위 수성페인트	텍스



IV. 종합고찰

1. 역사 및 건축적 의미
2. 보존방안



1 역사 및 건축적 의미

1934년 일제하에서 八峰 金基鎮씨 등이 주동이 돼서 「朝鮮青年」이란 잡지가 발간되었다가 2호까지 내고 총독부로부터 발행 중지를 당했다. 그 창간호에는 朴花城여사의 「헐어진 청년회관」이란 단편소설이 실렸다가 전문 삭제되어 버린 사건이 있었다. 이 소설은 목포에 실재한 건물을 주제로 하였다는 점이, 그리고 작가 박화성의 사상적 색채와 그 사상의 수수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오빠와 남편이 등장한 점에서 주목되는 소설이다.

억센 비바람으로 낡을 대로 낡은 청년회관의 지붕이 내려앉고 흙탕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표현으로 민족의 슬픔과 상처를 그린 이 청년회관은 1930년대를 전후 한 목포의 청년운동, 아니 민족운동의 보금자리 역할을 한 잊을 수 없는 건물이다.

목포 구 청년회관 건물은 일제강점기 민족운동과 목포청년운동의 산실로서 목포의 역사성과 지역민 정서를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향토문화유적이다. 현재 목포에 남겨진 근대건축물들은 일제강점기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건립되었던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이에 반해 구 목포청년회관의 경우는 우리민족 스스로의 자주성에 의해서 건립되고, 운영되었다.

일제강점기 목포에서는 1920년 목포청년회가 조직되는 것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청년운동이 펼쳐지게 되었는데, 당시 청년운동의 중심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목포 청년회관 건물이다. 1927년 신간회 목포지부 창립식을 비롯한 각종 사회활동이 청년회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식민지하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목포의 민족정신 계승을 위해 앞장섰던 수많은 애환과 일화를 간직한 유서 깊은 공간이다.

또한 구 목포청년회관 건물은 목포사람들의 모금운동을 통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당시 목포청년회는 1924년 4월부터 회관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을 통해 각계각층의 기금을 조성하여 아듬해 1924년 3월에 건물을 완공하게 되었고, 1930년대에는 목포청년회관 수축위원회를 결성하여 건물의 보존을 위한 수축공사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朝鮮青年」 1934. 10월에 실린 김기진의 “비오는 날 회관 앞에서”의 일부이다.

지금 함박으로 퍼붓는 비를 맞으면서
오고가는 거리에서 제외 당한 듯 호올로 서서 주인을 잃은
텅 비인 집, 옛날의 회관은 지붕이 새어서 폭포를 이루고

마룻장 위에는 흙탕물이 굽이굽이 흘러요.
아아, 한번 가고는 다시 못 오는 길로 떠나신 오빠!
당신의 동생 효주는 주먹으로 눈물을 씻었습니다.

건축적으로도 시공자가 명확히 드러나고 이제 목포에 몇 안남은 석조건축으로서
도 보존가치가 있다. 특히 집회시설로는 이 지역 근대건축 중 유일한 것이다.

2 보존방안

목포에는 개항도시답게 보존가치가 높은 근대건축물이 많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았고 최근인 2003년도에만도 석조건물인 죽동교회
(1935년 건립), 붉은 벽돌집인 유애나관(1900년대 초), 일본식 주택인 동양척식 목
포지점 지점장 관사(1920년대 초) 등이 혈렸다. 이 모든 것이 관의 문화유산에 대
한 보존의지 결여, 시민의 개인 사유재
산보호 속에 빚어진 결과이다.

구 도심에 산재된 근대문화유산은
목포지역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귀중한
자원이다. 일제하에 개항된 여러 도시
들의 경우, 근대문화유산이 도시의 성
장과정 속에서 많은 부분 이미 훼손되
어 버린 것에 비해, 목포의 경우 그래
도 비교적 보전상태가 양호건물들이
있다.



〈사진 34〉 초창기 정명여학교 교장 사택이었던 유애나관



〈사진 35〉 죽동교회

한동안 목포청년회관 건물은 지역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폐허상태로 방치되는 수난을 겪기도 하였지만, 다행히 해방이후 1954년부터 교회측의 보존 노력으로 건물의 외관이나마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구 목포청년회관 건물에 대한 보존·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한다. 단순히 보존이라는 소극적인 형태의 문화재 정책이 아니라 목포의 역사성과 민족성을 담고 있는 목포청년회관의 옛 기능까지도 되살려서 폭넓게 목포시민사회에 계승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목포 KYC(한국청년연합회 목포지부), 목포문화연대, 목포문화원 등의 사회단체와 학교 등이 함께 고민하여야한다.

무엇보다도 청년회관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는 목포시 당국의 의지와 협조가 필요하다. 진입로 정리, 건물 매입, 주차장 확보 등 주변 환경조성 등에는 많은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목포에서는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별다른 보전대책이 없었으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타 도시에서와 같이 재건축, 도로개설 등에 의해 훼손될 우려가 있다. 가능한 빨리 근대문화유산 일제 조사를 통해 현실적인 보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목포시는 지난 2001년 자치조례로 “목포시 문화유산 보호조례(2001년 10월 15일 공포)”를 만들어서 우리 고장에 산재되어 있는 유·무형의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한 바 있으며, 또한 구도심의 역사유적들을 활용한 “목포 역사문화의 길 조성계획”(2002년, 목포대)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이 모든 계획들이 착오없이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사진 36〉 구 동양척식 목포지점 지점장 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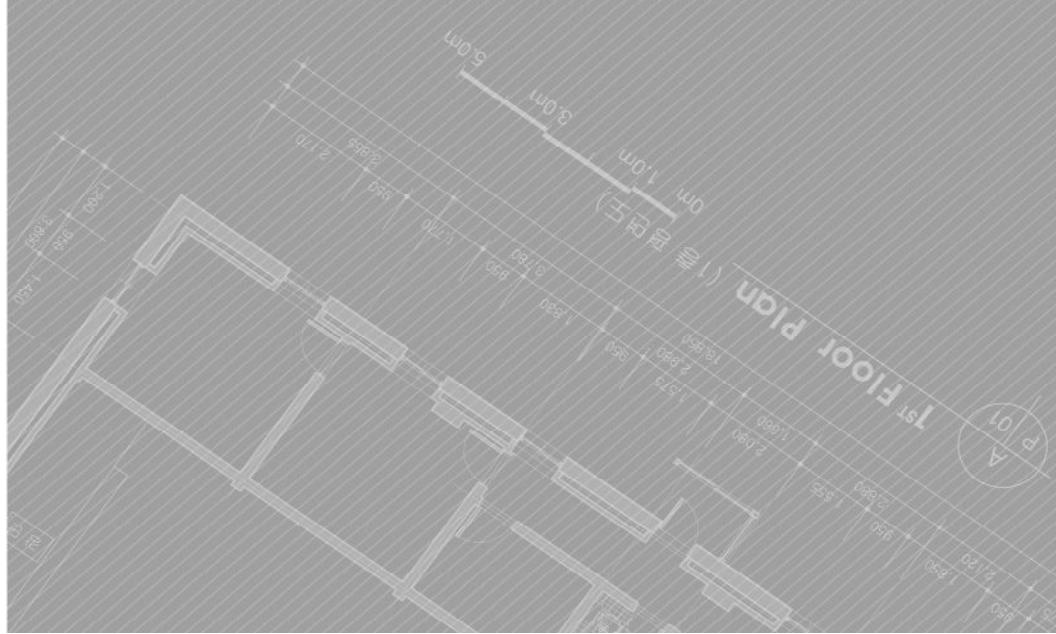


〈사진 37〉 1990년 화재로 전소된 정명여학교 구 선교사 사택.
이 건물은 2001년에 복원되었고 2002년에 등록문화재 제 62호로 지정되었다.



V. 실측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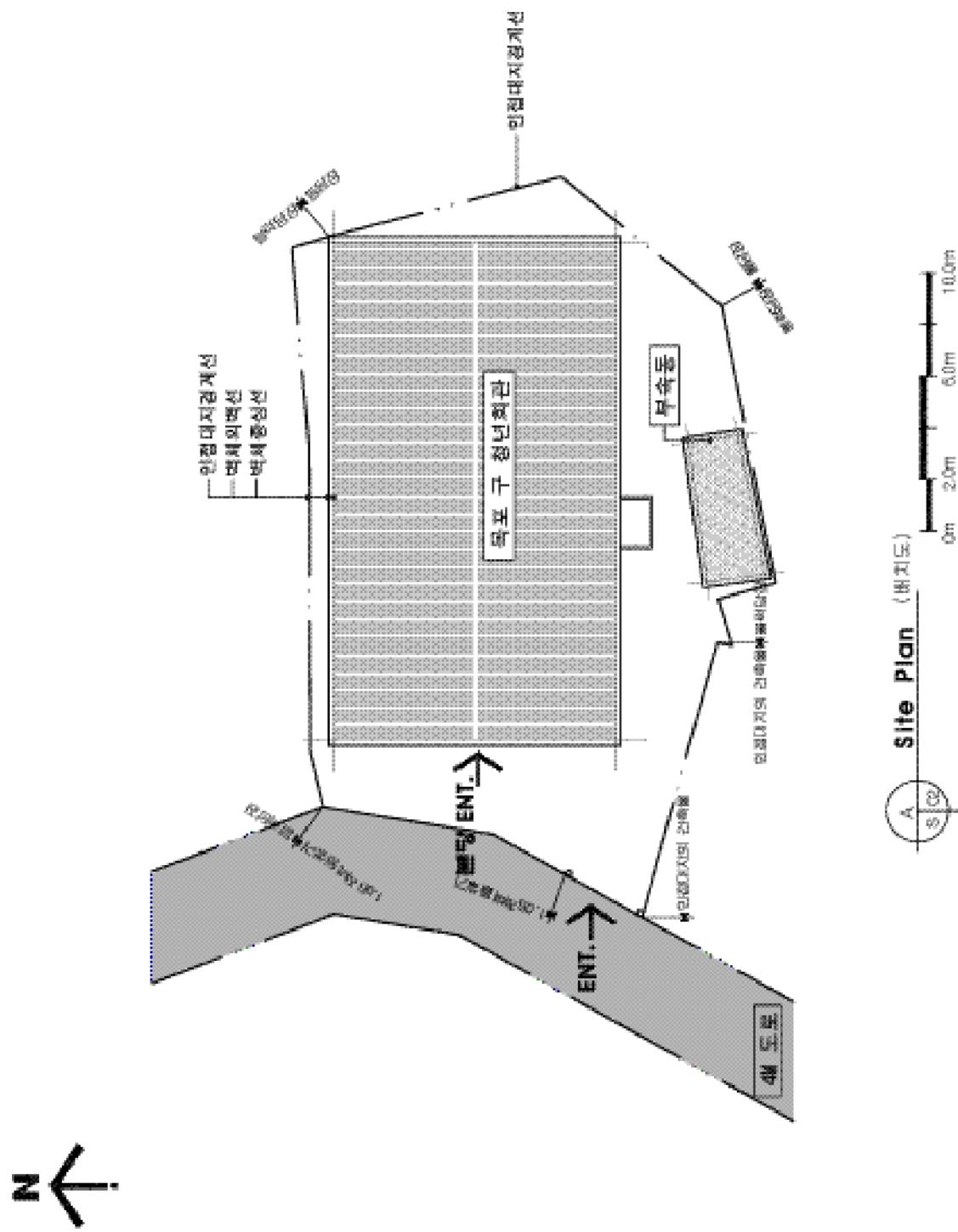
- 위치 안내도
- 배치도
- 1층 평면도
- 중2층 평면도
- 지붕 평면도
- 정면도
- 좌측면도
- 배면도
- 우측면도
- 횡단면도
- 종단면도
- 1층 창호 평면도
- 2층 창호 평면도
- 창호도
- 상세도(1)
- 상세도(2)
- 상세도(3)
- 트러스 구조도
- 옥외 화장실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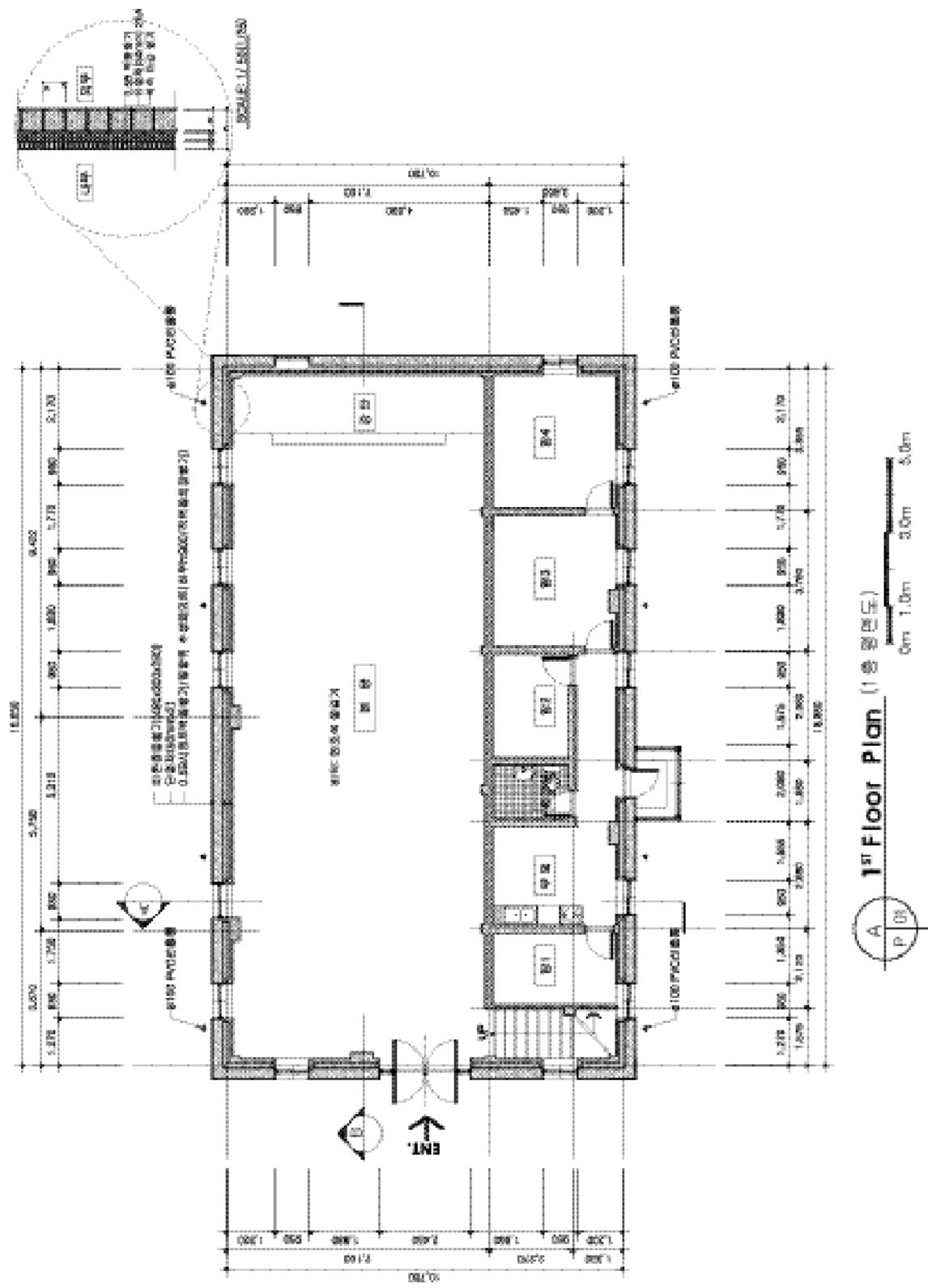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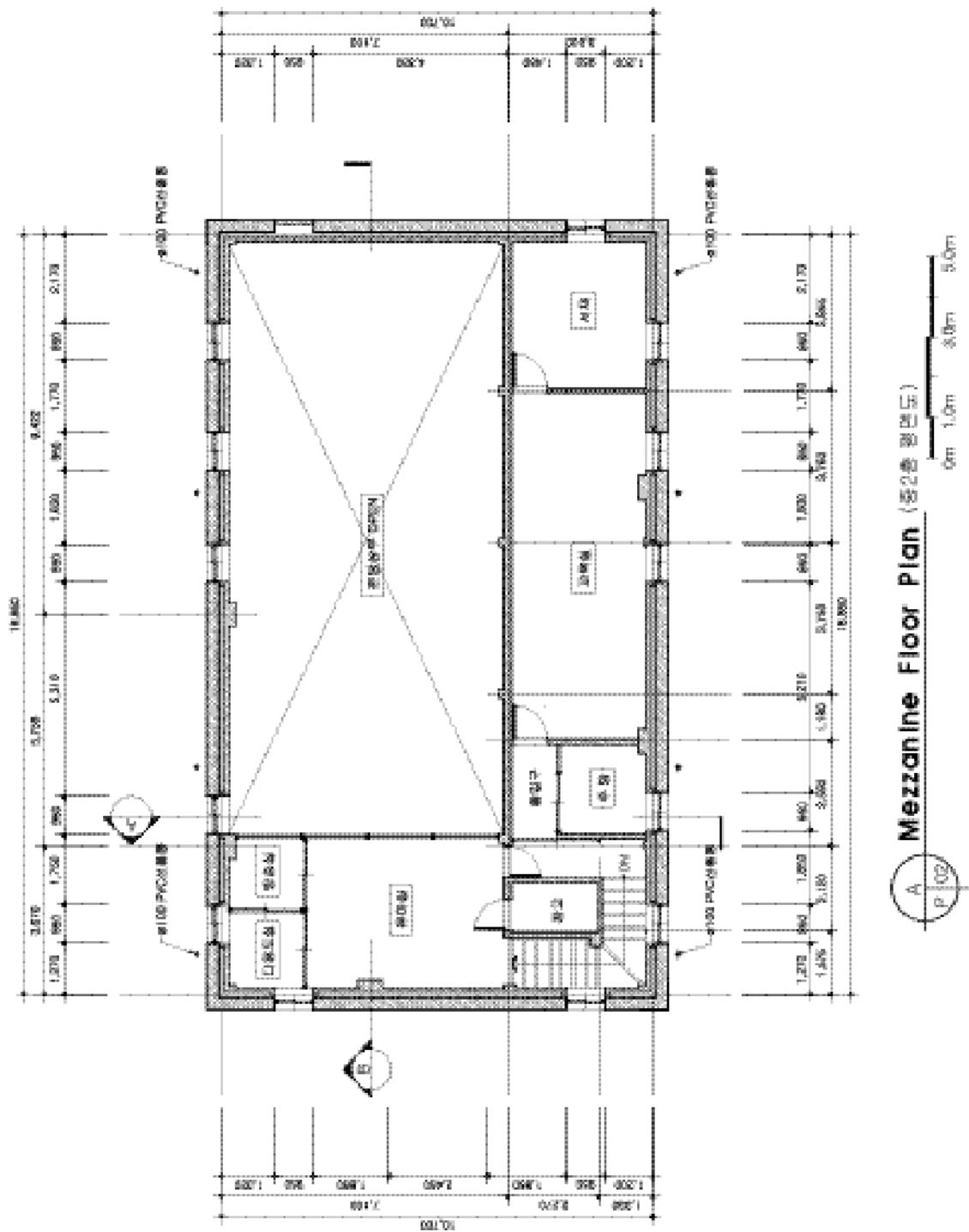
Site Plan (위치도) 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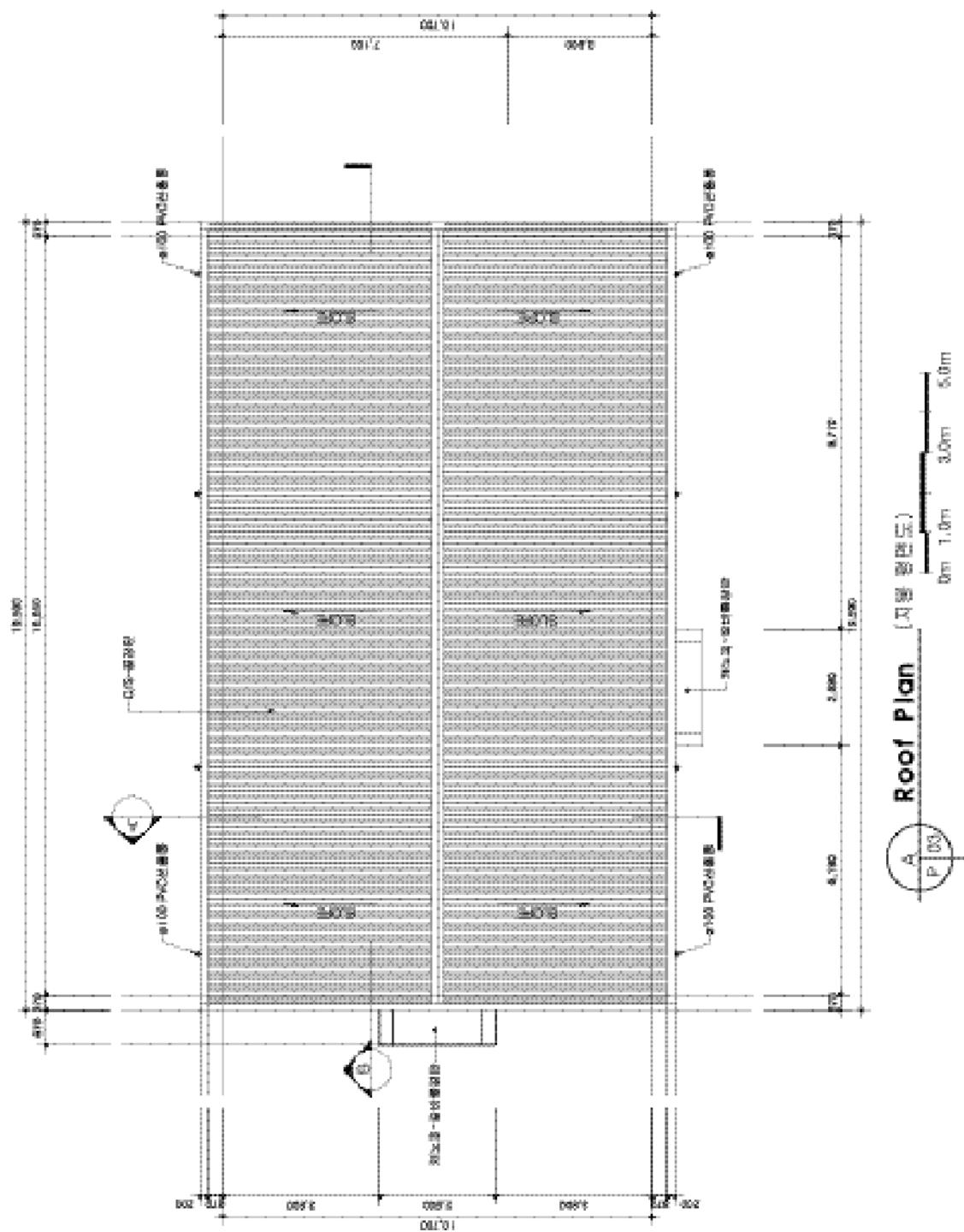
목포구 청년호관 우수 안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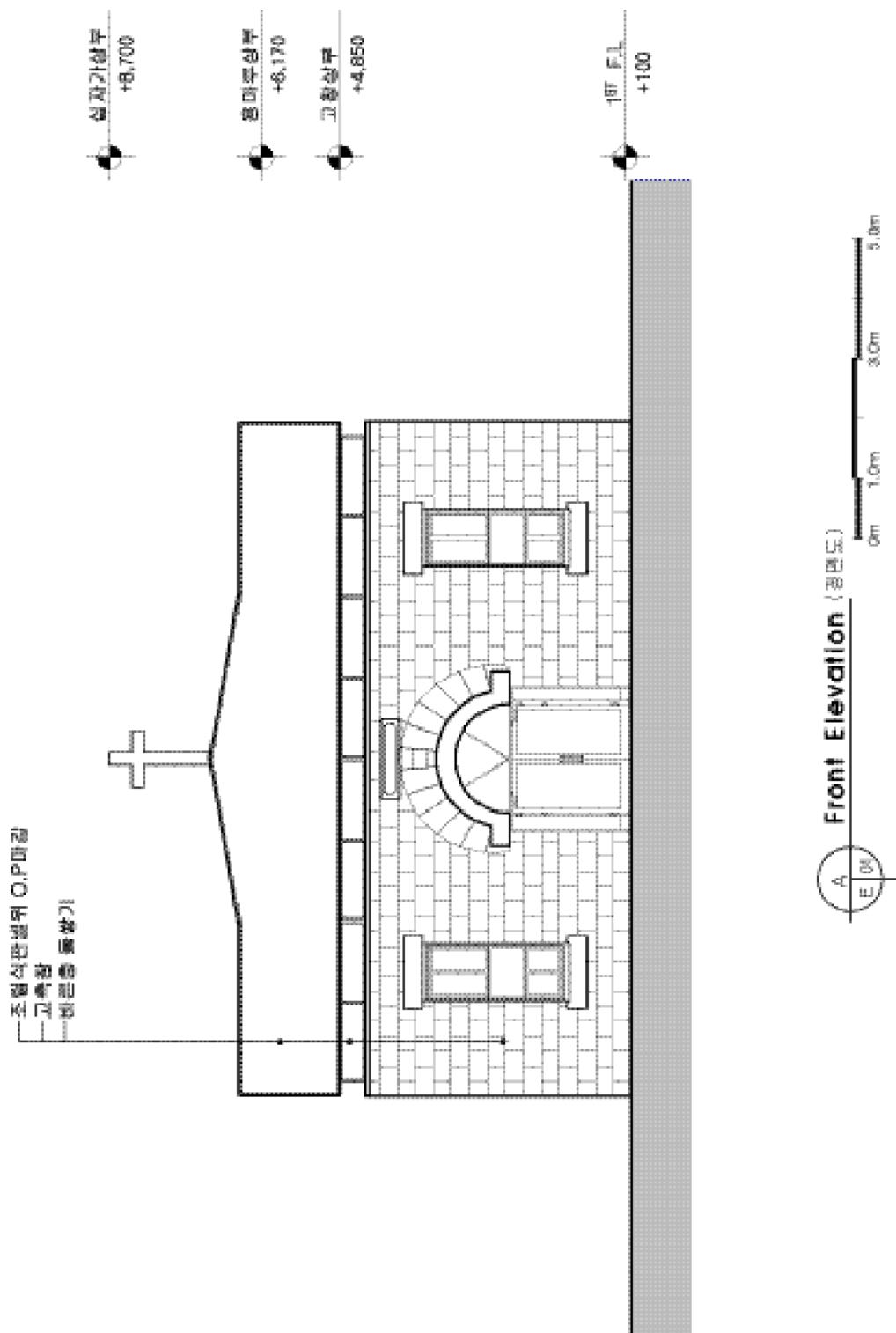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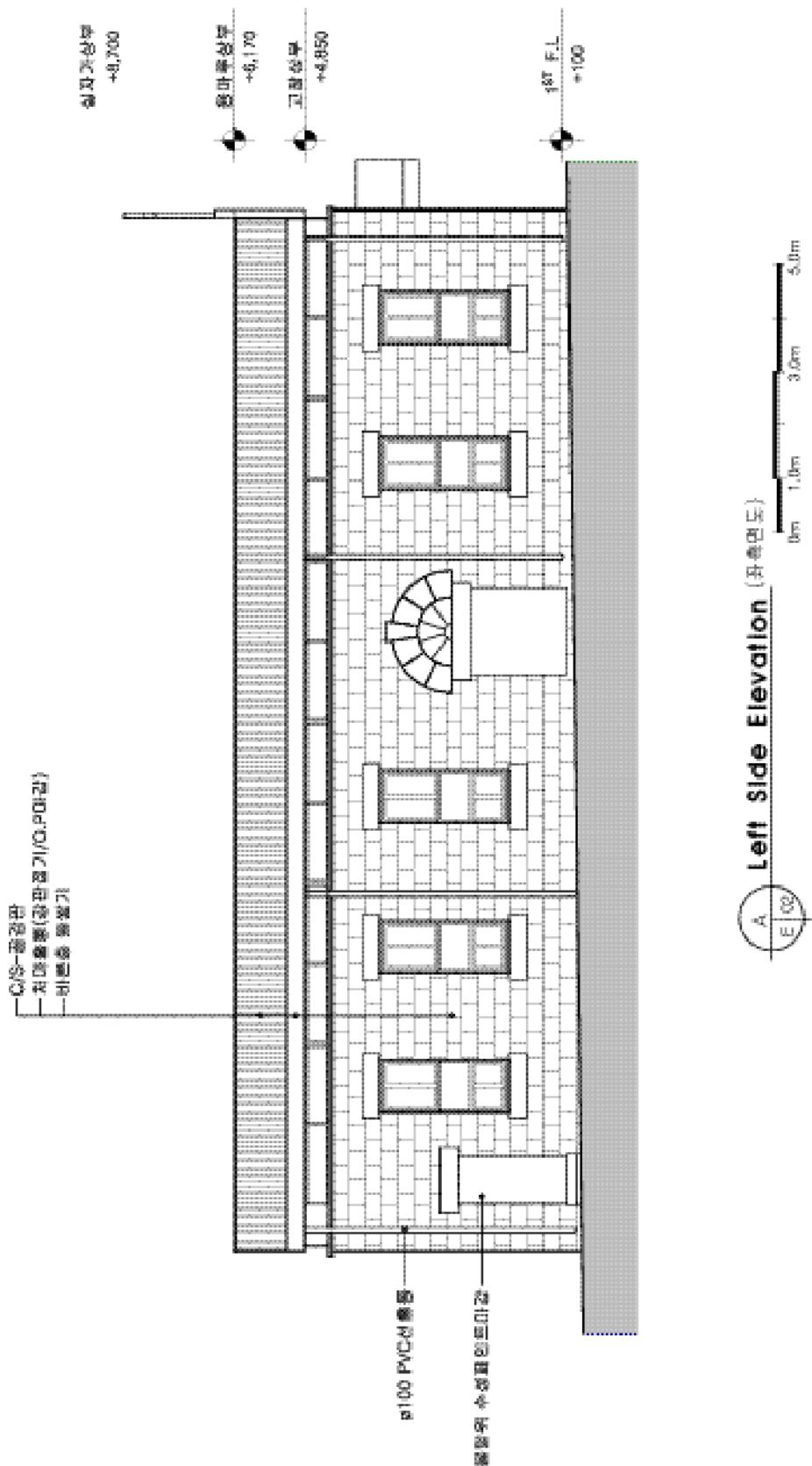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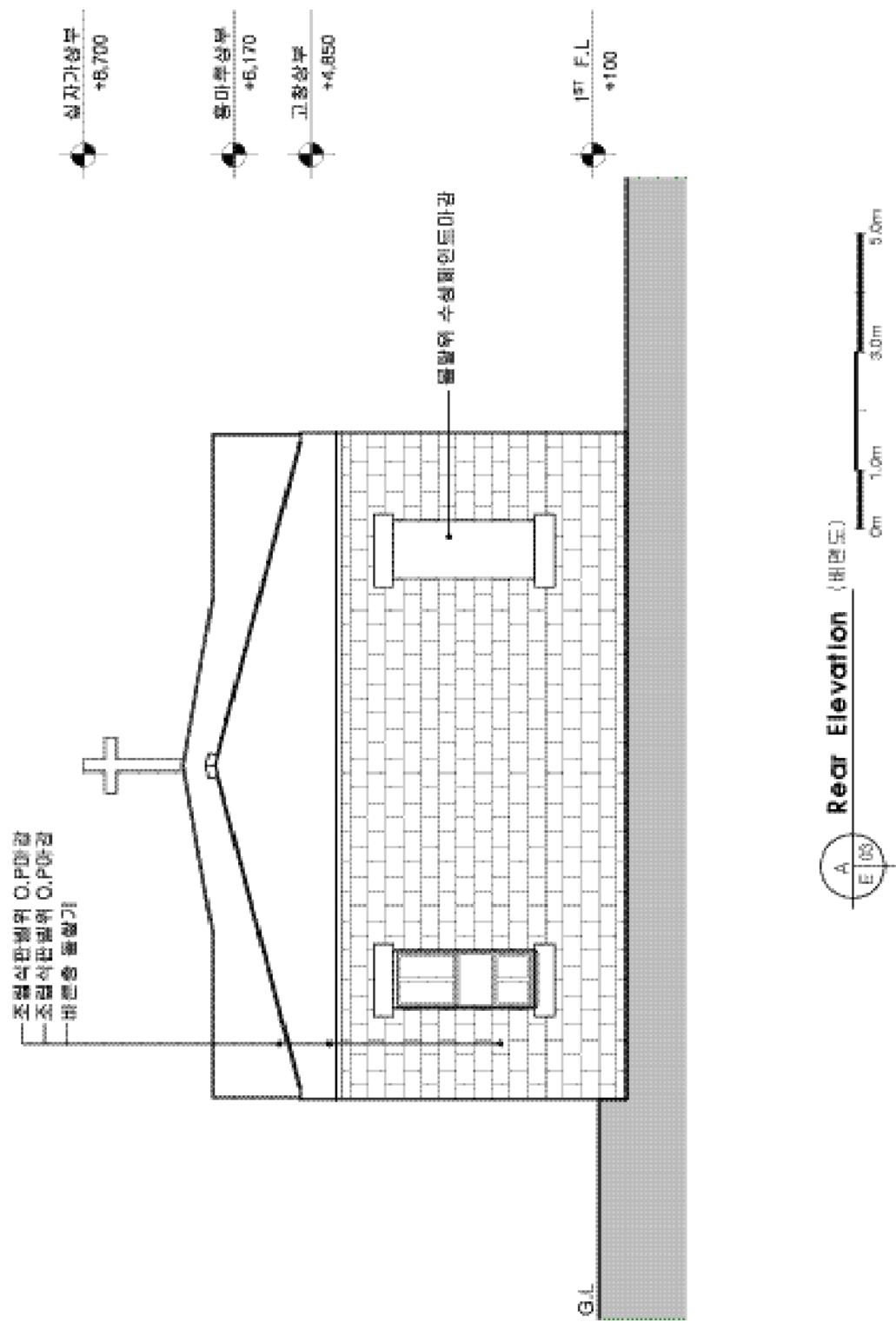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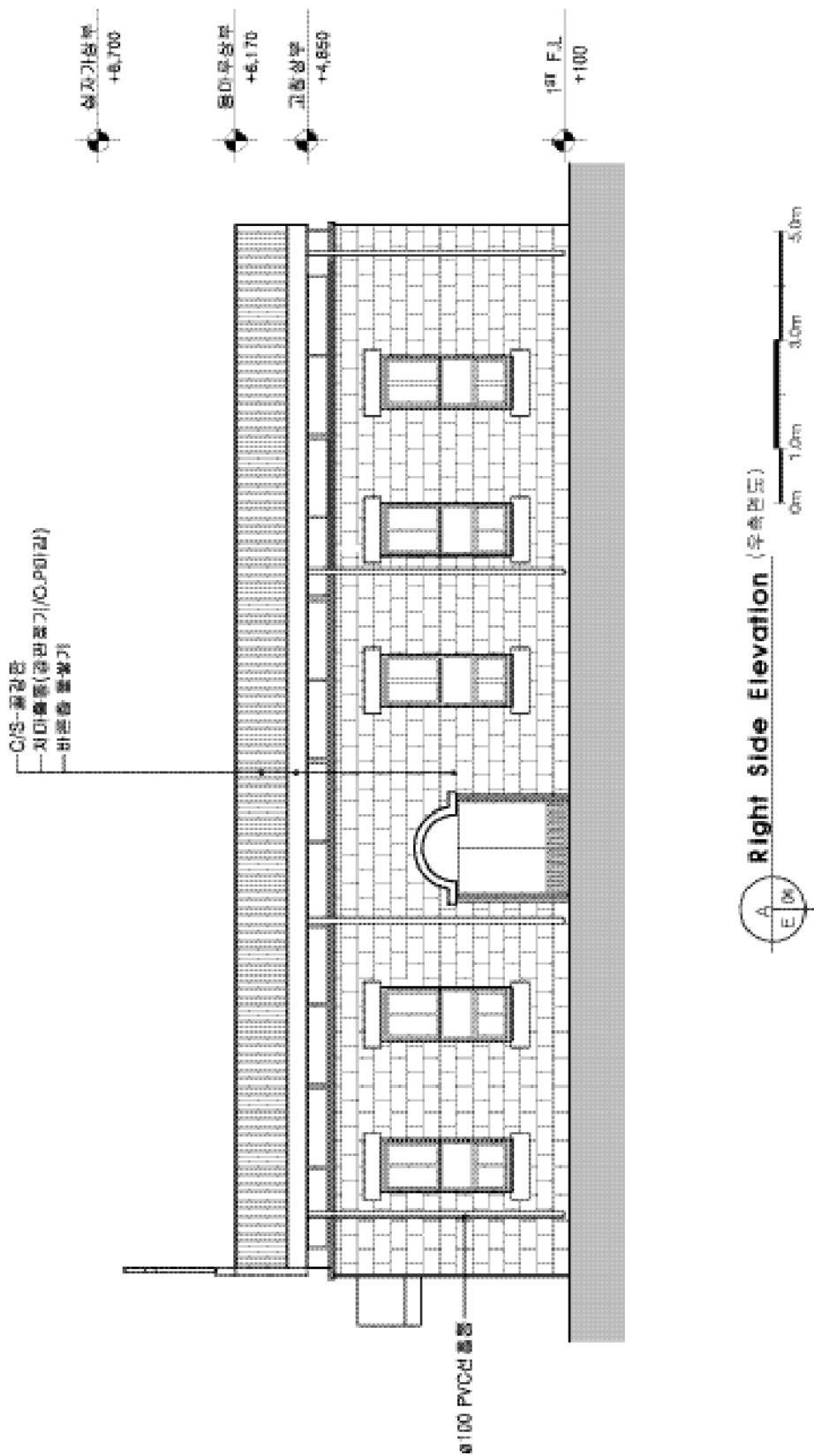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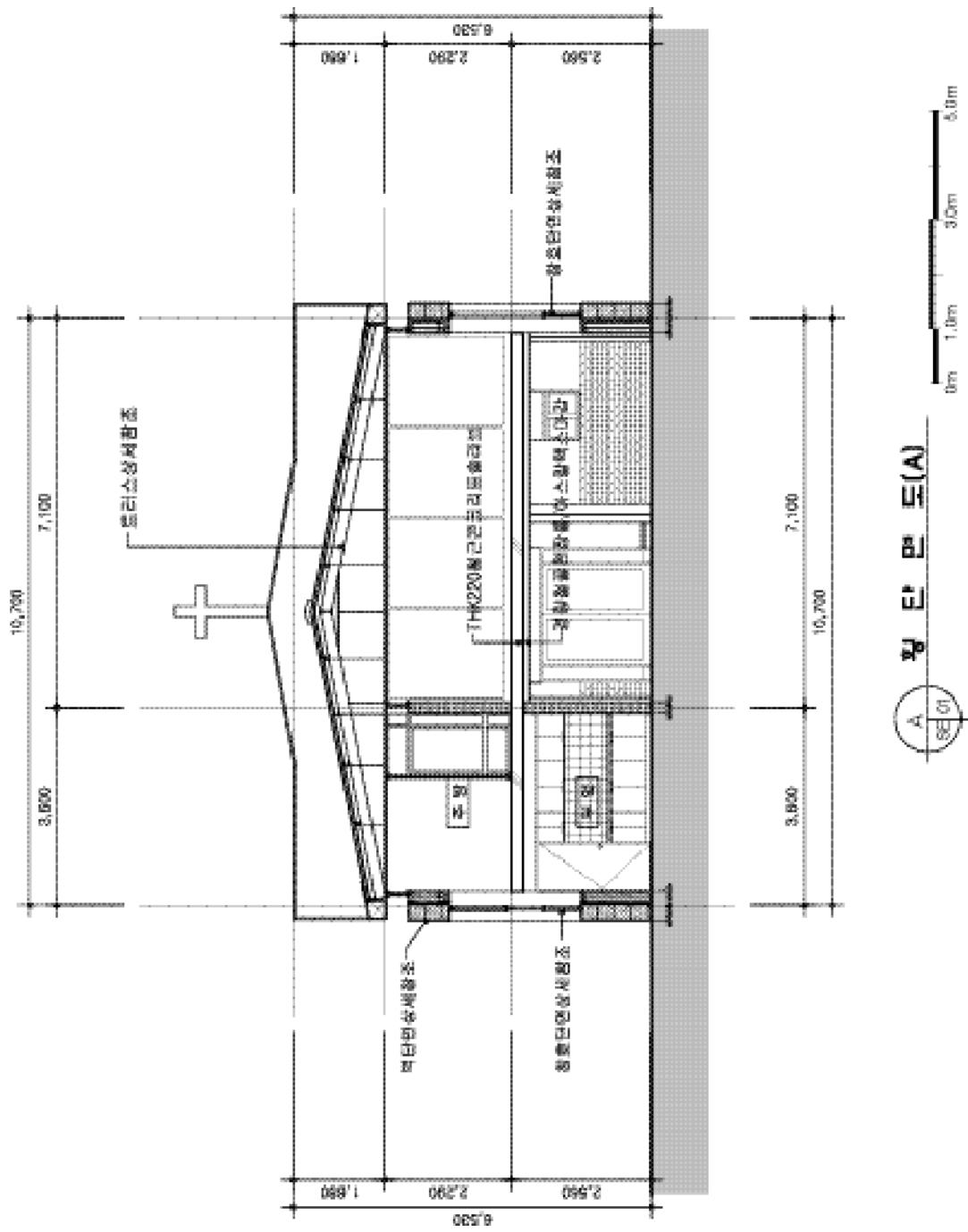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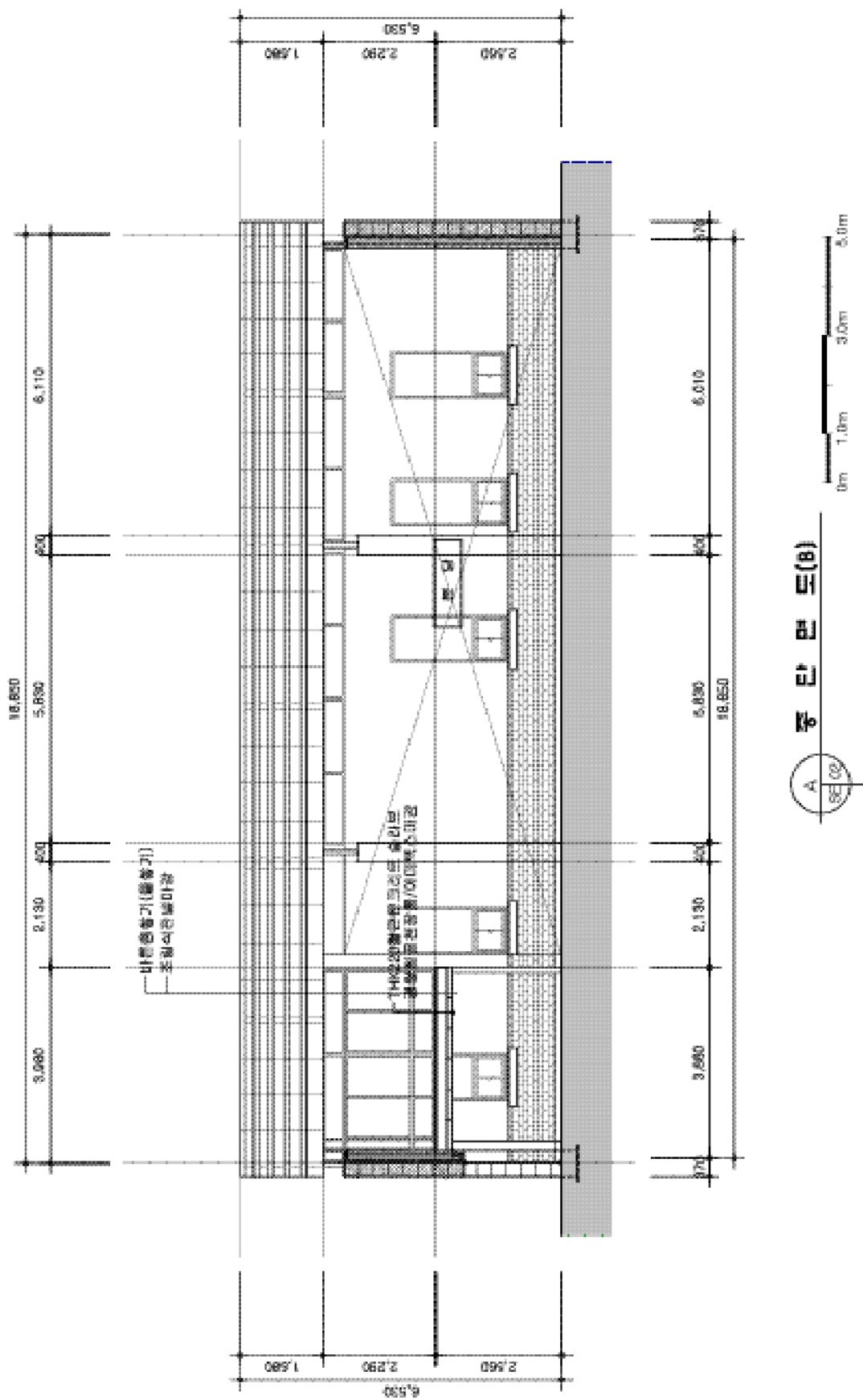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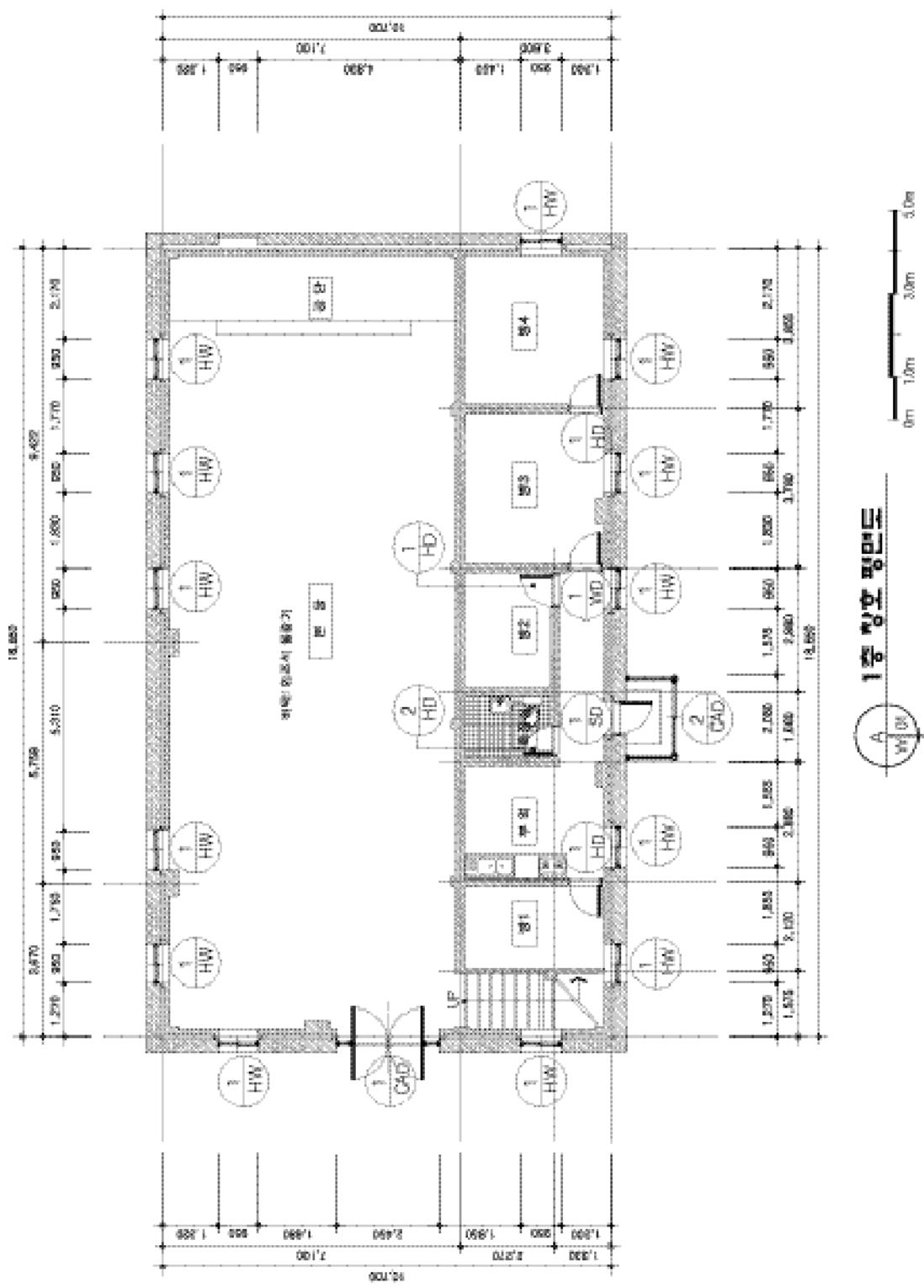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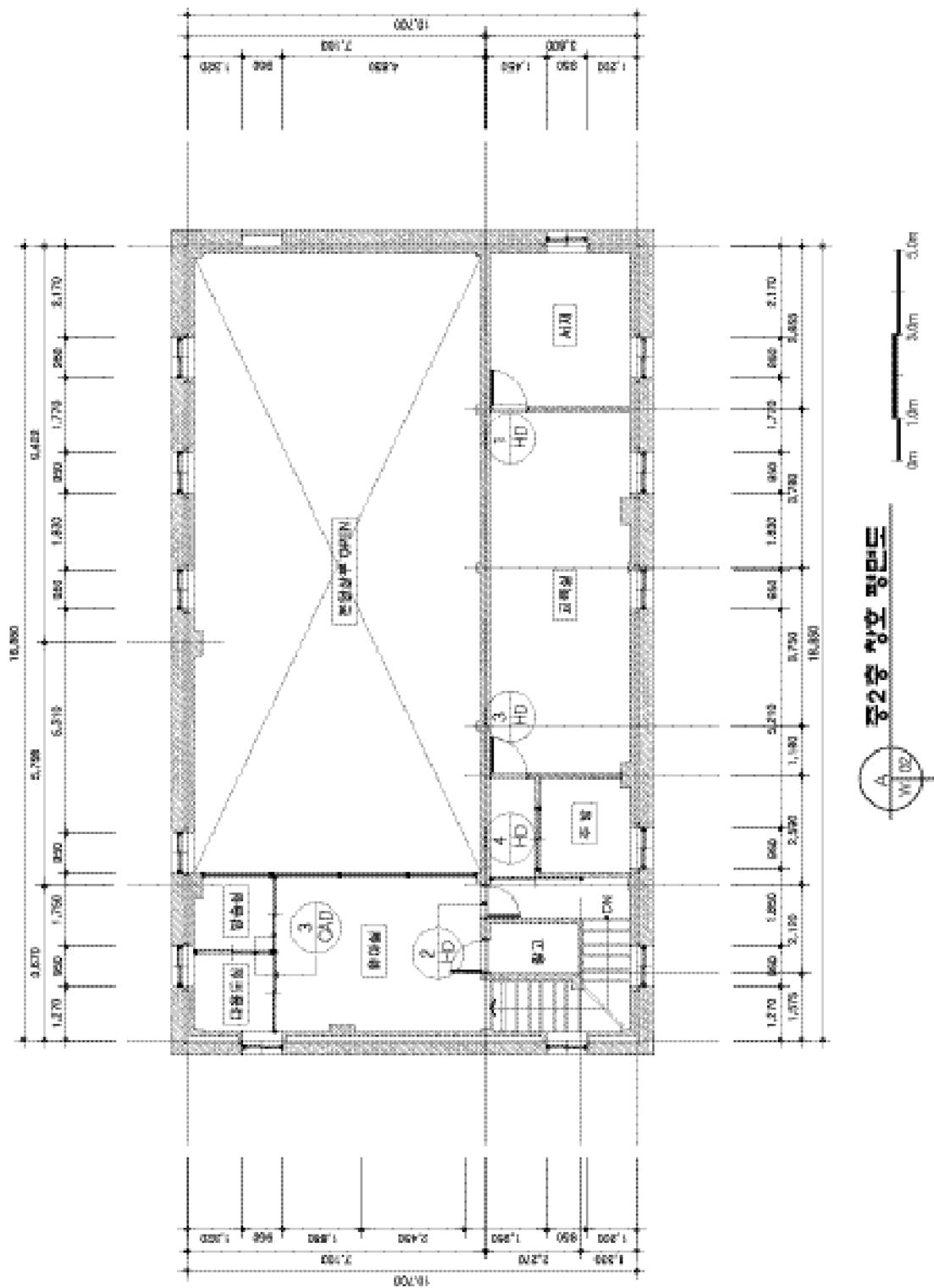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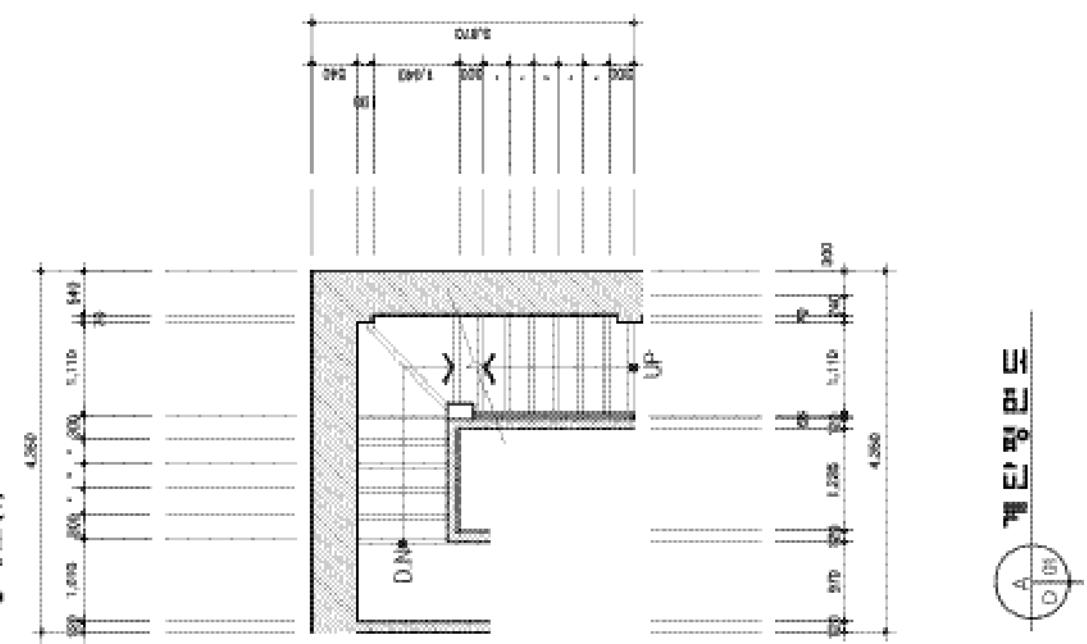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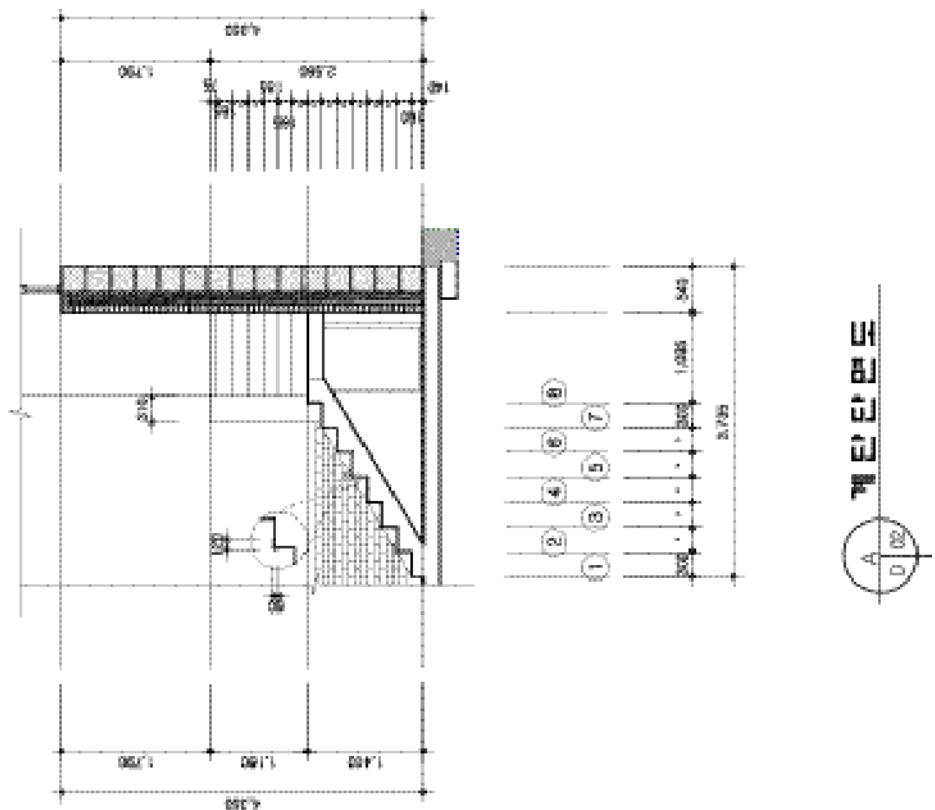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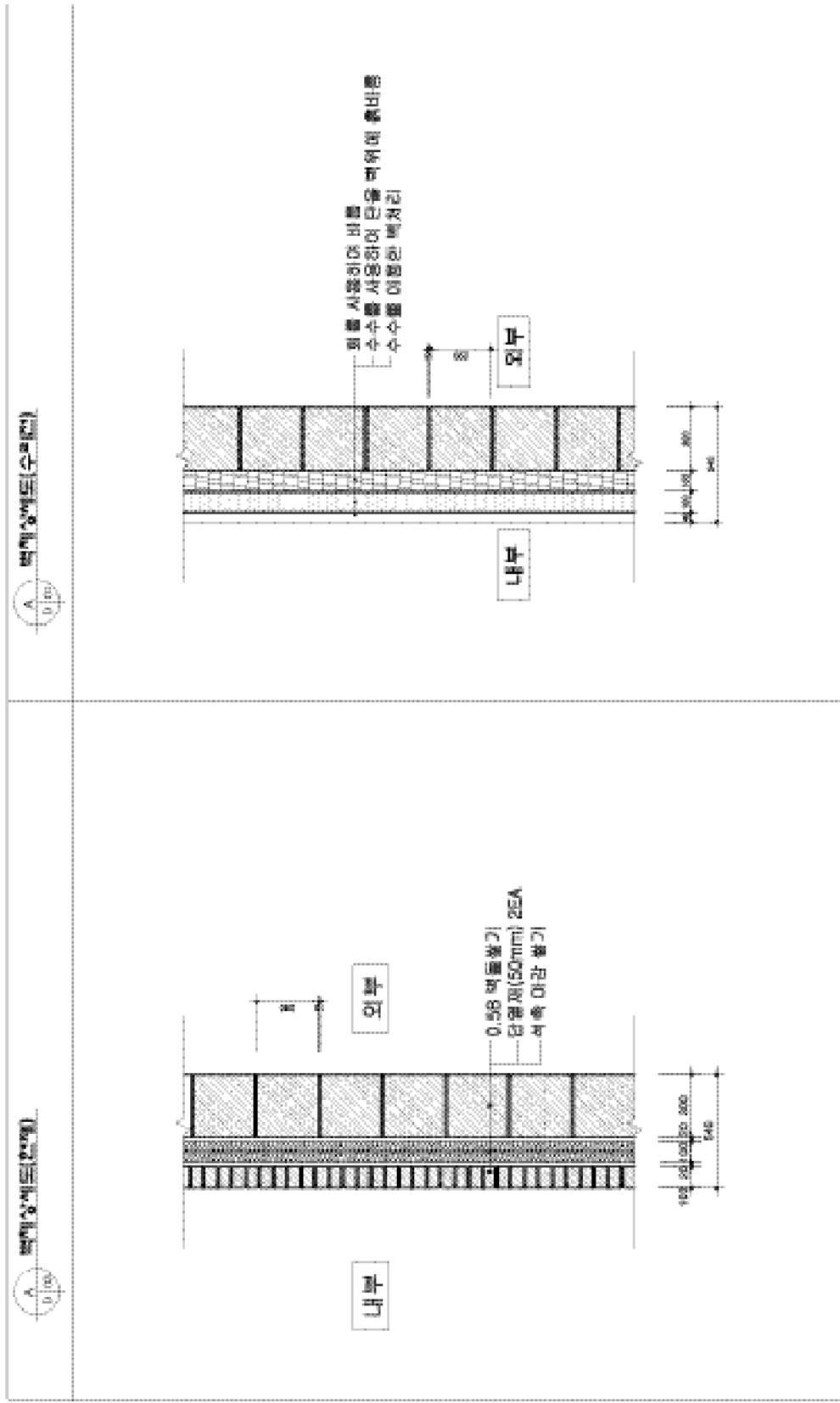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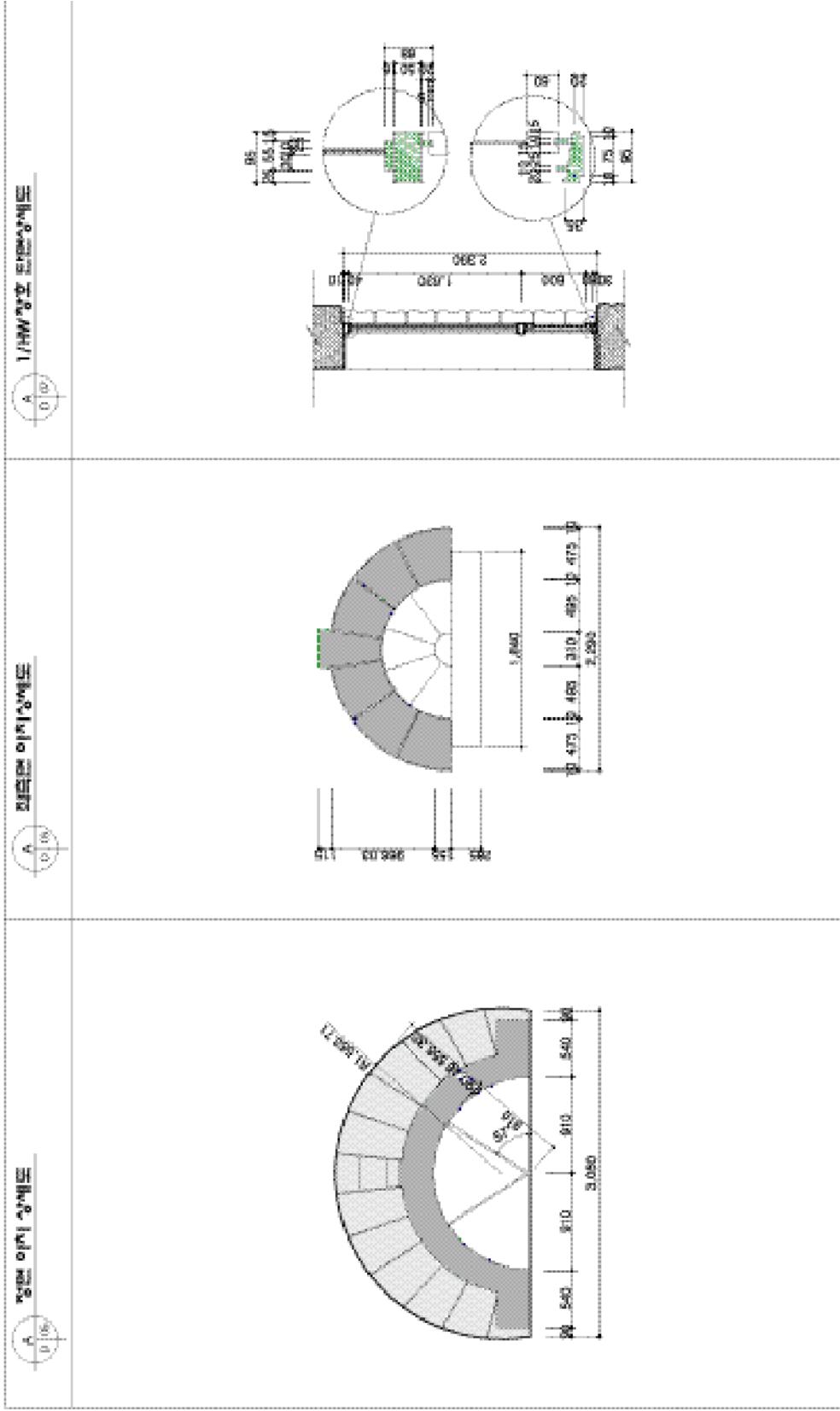
기록화 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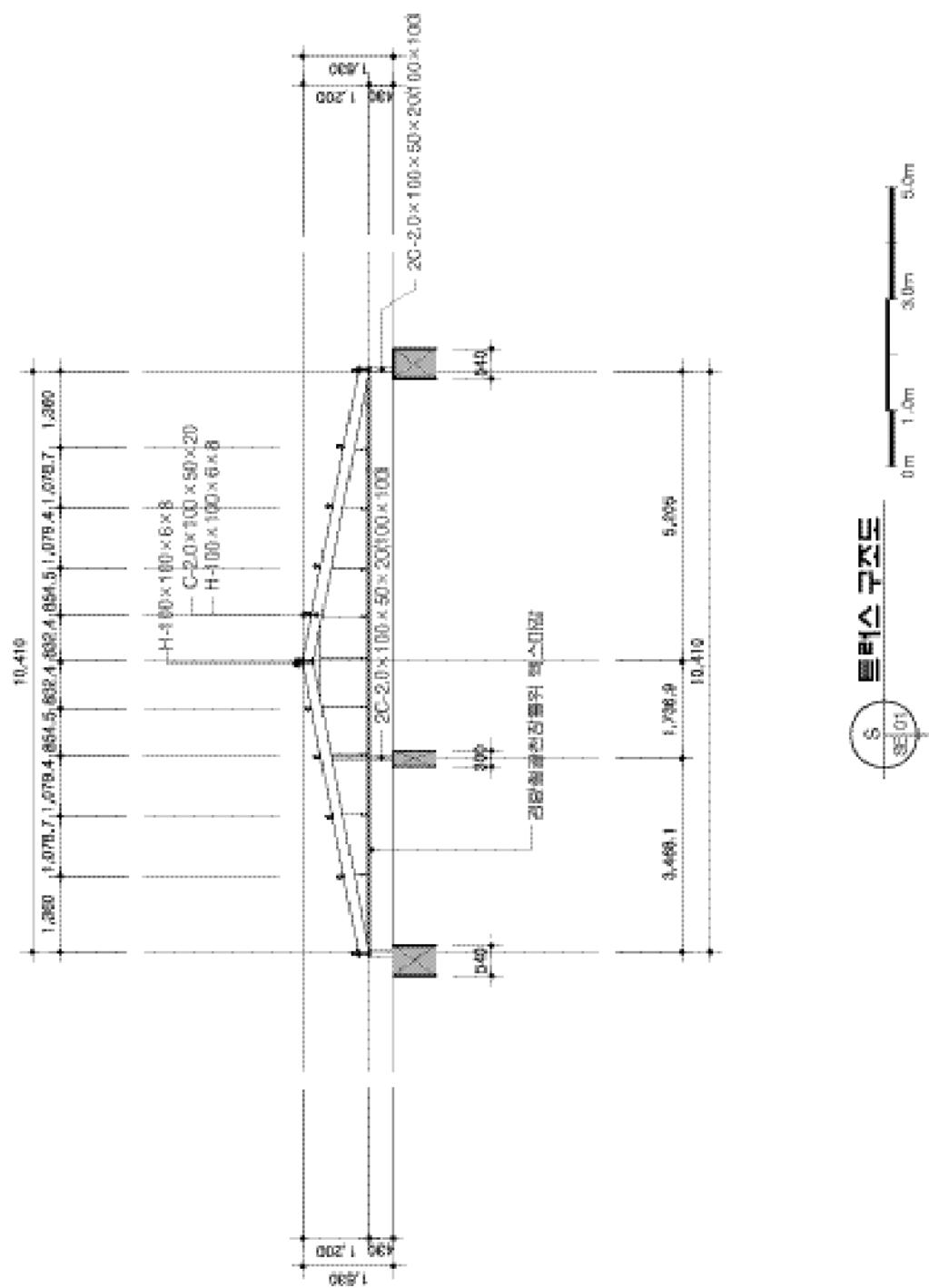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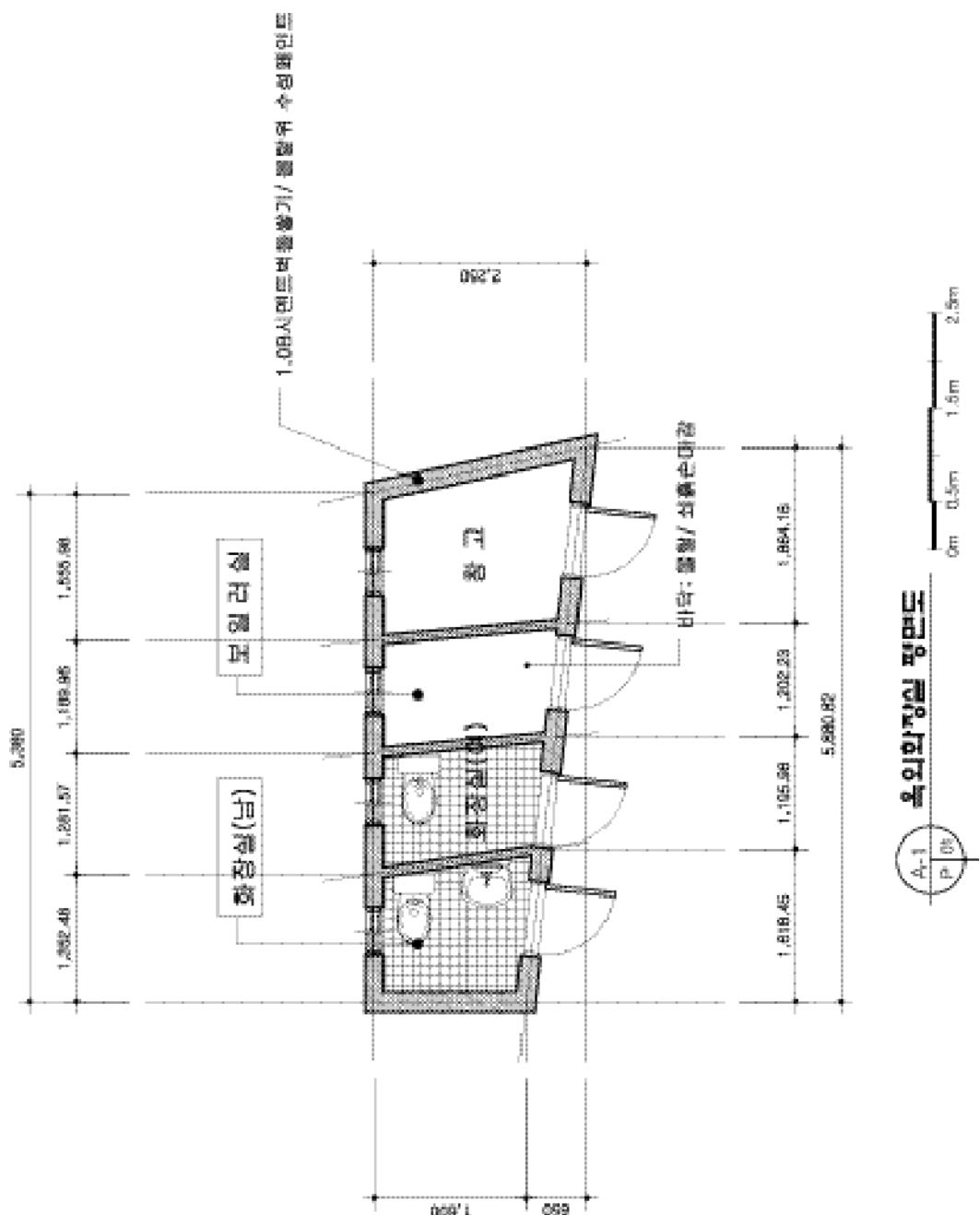
二〇四三(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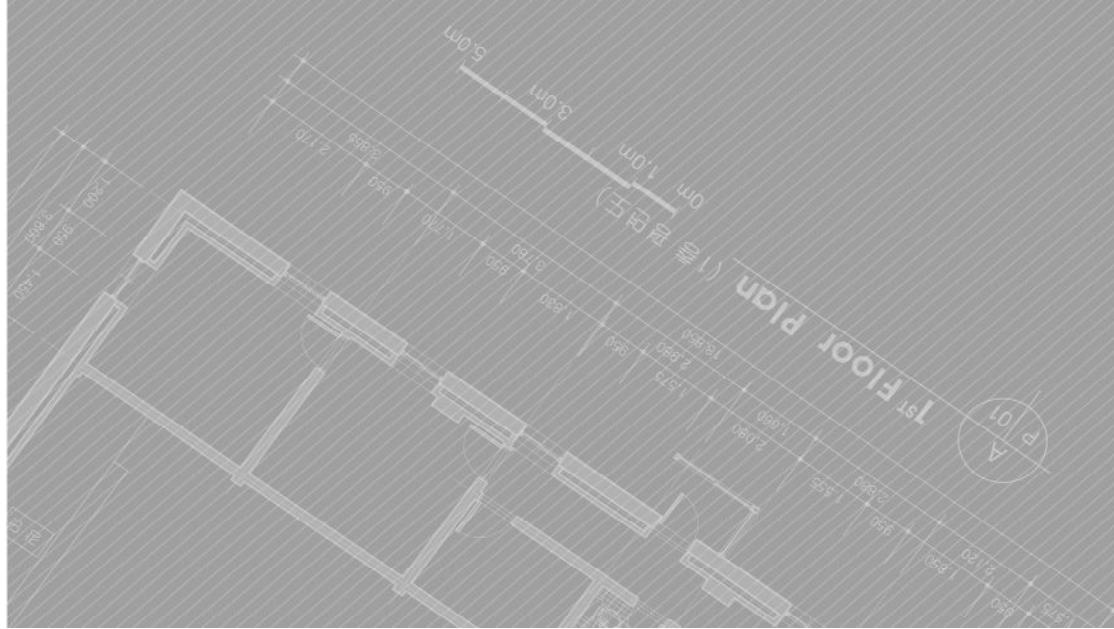








단색 화보



목포 구 청년회관



주변현황



전면도로





정면



상부

목포 구 청년회관 입구



좌측면 출입구 아치

정·우측면 코너 하단



정면 출입구 캐노피



우측면



입면 상세(정면 출입구 우측)



창호



창호 상인방



창호 하인방



측면 상부 측창

본당 내부



본당 내부
(출입구 쪽)

계단실



증축 유아실



목사 사택 (주방)



교회 강단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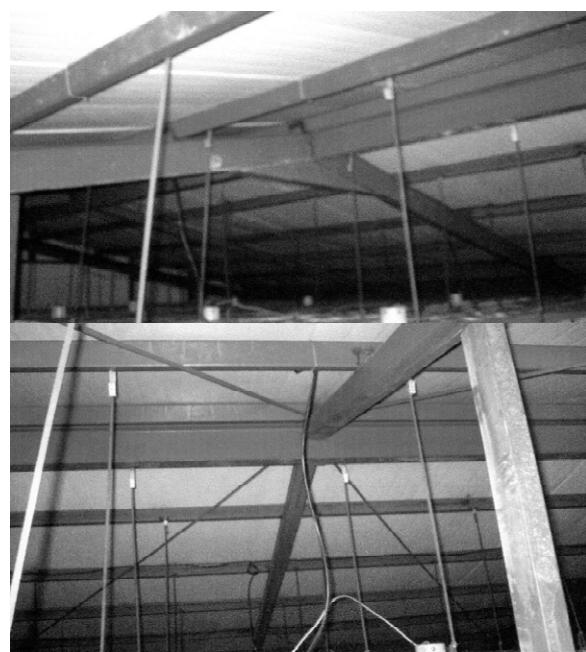
담장



내부 측면 하단



지붕 철재 구조





대수선(1994년 초) 전
건물정면과 담장 모습



대수선을 위한
철거 모습



대수선 전 담장



1993년
교회 여름학교



대수선 전
교회본당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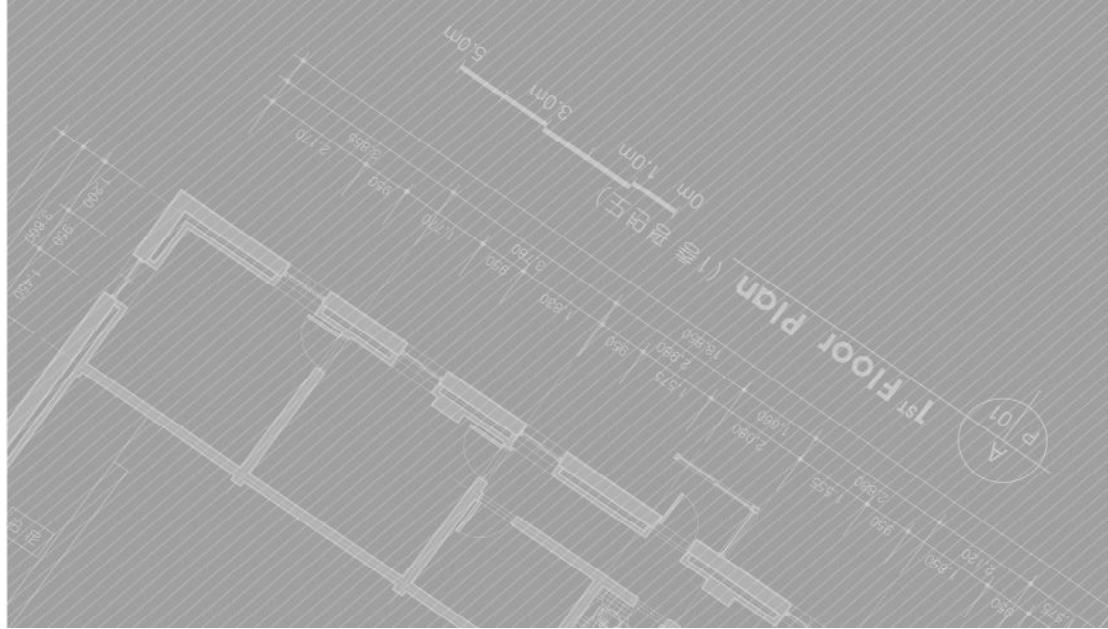
대수선 전
교회본당 강단



박화성 탄생
100주년 기념 현판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1. 김지민 외, 「목포시의 문화유적」, 목포대 박물관, 1995.
2. 목포시사 편찬위원회, 「목포시사」, 목포시, 1997.
3. 목포개항 100년사 편찬위원회, 「목포개항 100년사」, 목포 100년회, 1997.
4. 김지민, 「목포의 근대건축」, 목포 문화원, 2002.
5. 박찬승, 「목포 근현대 신문자료 집성」, 목포 문화원, 2002.
6. 「목포시 역사문화의 길 조성 기본계획」, 목포시, 2002.
7. 천득염 외, 「전남 근대 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 전라남도, 2003.
8. 예그린 건축, 「나주 노안천주교회 실측조사 보고서」, 문화재청, 2004.
9. 삼풍 엔지니어링, 「옥천 천주교회 실측조사 보고서」, 문화재청, 2004.
10. 고석규, 「근대도시 목포의 역사 공간 문화」, 서울대 출판부, 2004.

